

손경식 회장 “출혈경영…법인세 내려달라” 4



구현모 號 첫 성적표…KT 1분기 실적 선방 12



이재용·정의선 손잡고 ‘꿈의 전기차’ 만든다

‘3세 협력시대’ 연 삼성·현대차

삼성SDI 천안공장 나란히 방문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전지’ 협력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수석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손잡고 전기차 산업 육성 대책을 모색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경영진과 현대차그룹은 이날 오전 삼성SDI 천안사업장을 찾아 차세대 전기자동차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관련기사 2면

현대차그룹에선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알버트 비어만 사장, 상품담당 서보신 사장 등이 현장을 찾았다.

삼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SDI 전영현 사장, 삼성종합기술원 황성우 사장 등이 현대차그룹 경영진을 맞았다. 삼성SDI 천안사업장은 소형 배터리와 자동차용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이다.

현대차그룹 경영진은 전지동 임원회의실에서 삼성SDI 및 삼성종합기술원 담당 임원으로부터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기술 동향과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양사 경영진은 삼성SDI 천안사업장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선행 개발 현장도

둘러봤다.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전고체전지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하는 배터리로 기존 리튬이온전지와 비교해 대용량을 구현하고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재 현대차 전동화 모델에는 LG화학 배터리가, 기아차 전동화 차량에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주로 사용된다.

현대기아차는 순수 전기차에 탑재할 배터리를 3차레 추가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는 ‘한국판 뉴딜’로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단단하고 안정화돼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중 하나”라며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혁신을 위해 양사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샤넬 오르기 전에 사자” 진풍경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가격 인상 소식이 전국 주요 백화점 명품관이 이른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루는 등 진풍경이 펼쳐졌다. 13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길게 줄서 있다.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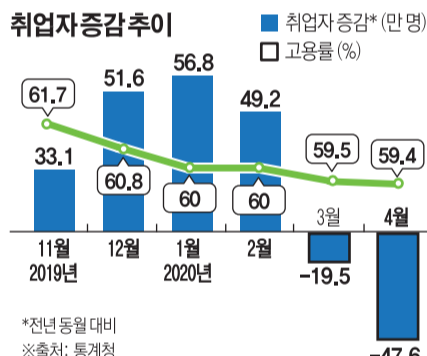
4월 고용 최악…정부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취업자 47만명 ↓ …21년 만에 최대
코로나 19 일시휴직자 113만명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의 후폭풍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50만 명 가까이 줄었다. 정부는 고용 충격에 대응해 55만 개+알파(α) 규모의 재정 일자리를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통계청은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5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59.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1%로 각각 1.4%포인트(P) 내렸다.

취업자는 외환위기 막바지였던 1999년 2월 이후,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09년 5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전월과 비교해선 취업자 감소 폭이 19만5000명에서 2배 이상 확대됐다.



일시휴직자는 113만 명 늘었다. 그나마 5월부터는 교육서비스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기관·시설 운영이 재개돼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고용률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장은 “60세 이상은 증가했다기 보단 증가 폭이 축소됐는데 의미를 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자 급감에도 실업자는 117만2000명으로 7만3000명 줄고, 실업률은 4.2%로 0.2%P 내렸다. 채용 연기로 구직활동

이 줄면서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서다. 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한 고용보조지표 3(확장실업률)은 14.9%로 2.5%P, 청년층에선 26.6%로 1.4%P 각각 상승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2주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55만 개+α 직접일자리 신속 공급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 등 기간산업 고용 충격이 확산하지 않도록 기간산업 안정자금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가적 고용시장 안정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고용시장 충격으로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주도록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진력할 방침”이라며 “특히 현재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과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개발 수혜권 원효로·이촌동 등 포함
대지 18㎡초과 주택매매 제한 전망

8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코레일 용산역 철도 정비창’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역 정비창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논의한다. 6일 국토부가 용산역 정비창에 주택 8000가구와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인근 부동산 가격이 들쭉이고 있기 때문이다. <5월 8일자 16면 ‘용산 개발 2년 만에 용틀임’ 기사 참조> 중도위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때부터 규제 효력이 생긴다.

▶관련기사 17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엔 정비창이 속한 한강로동은 물론 개발 수혜권에 속한 원효로 1·2동과 이촌 1·2동 등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

서를 작성, 기초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그 목적을 이행해야 한다.

토지뿐 아니라 구역 내 주택과 상업·공업시설 등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는다.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으면 매입 후 최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제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기준 면적의 10분의 1까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산지역에 대지 지분이 적은 부동산이 많은 것을 고려해 이 조항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 경우 주거지역에 속한 주택은 대지 지분이 18㎡만 넘으면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 안팎에선 적용 대상을 넓히기 위해 기준 면적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일대 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시 등과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할 방침이다. 박종화 기자 pbll@

무디스 “13개 기업 신용등급 부정적·하향 검토”

“車·정유·화학, 코로나 충격 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겨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볼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13일 ‘기업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2020년 한국 비(非)금융 기업에 역풍 예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와 국제교역, 경제 성장 둔화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 재무건전성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신용 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현재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

는 22개 한국 민간기업 중 13개사는 전망이 ‘부정적’이거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유원희 무디스 부사장 겸 수석 크레디트오피서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고, 일부 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인해 재무 레버리지가 추가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특히 자동차 업체들이 수요 충격과 공급체인 차질에 대한 노출도가 높고 2020년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내수 판매를 중심으로 자동차 생산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서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본격적인 공장 재가동 시점이 불분명한 상태

다.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세계 곳곳에서 생산 차질과 판매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 생산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1000만 대 이상의 판매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유, 화학, 철강 등 경기 민감형 산업들도 경제활동 둔화로 이익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신용등급이 부여된 한국 기업 중 상당수가 저유가 또는 원화 약세로 긍정적 영향을 받았지만, 이러한 효과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의 영향을 상쇄하기에 충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삼성전자·현대차〉

재계 1·2위 '의기투합'... 日 전기차 동맹에 도전장

미래 자동차 한·일전 예고

삼성, 전고체 배터리 기술 확보
내구·안전성 비약적으로 개선

日 토요타-파나소닉 JV 맞대응
세계 전기차 시장 선점 정조준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작년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만나 웃으며 악수하고 있는 모습. 뉴스시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 배경은 뚜렷하다. 5대 신수종으로 자동차 전지를 앞세운 삼성전자가, 미래차 전략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60조 원을 쏟아낼 현대차 모두 일본 기업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단독 면담의 배경에는 각 그룹이 처한 현안이 유성기어처럼 맞물렸다. 삼성그룹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톱3를 LG화학과 파나소닉(일본), CATL(중국)에 내줬다. 현대차 역시 글로벌 톱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각각 속명처럼 여겨온 경쟁사와의 대결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 서려 있다.

먼저 삼성전자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한 '전고체 배터리' 원천 기술을 최근 확보했다. 배터리 출력은 지금보다 2배 넘게 증가했고, 내구성과 안전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기술을 담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반면 전고체 배터리는 이름 그대로 '고체' 형태의 전해질을 쓴다. 액체보다 상대적으로 온도변화에 덜 민감해 추운 겨울 배터리 성능이 떨어질 염려가 없다. 여기에 액체 전해질 유출 우려가 낮아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를 중소형 전기차에 장착하면 1회 충전으로 최대 800km를 달릴 수 있다. 나아가 1000회 이상 재충전도 가능하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1회 충전 항속거리가 400km 수준이고, 약 500회 충전하면 배터리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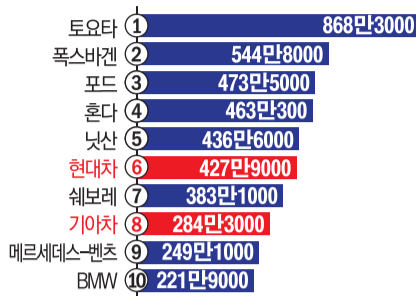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원천 기술을 개발, 최근 국제적 과학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에 관련 기술을 게재했다. 현재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기업은 파나소닉이다. 현대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차세대 전기차 시대의 게임체인저가 될 '전고체 배터리'가 절실한 현대차는 이를 바탕으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개발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 업계는 전고체 배터리를 전기차 시장 판도변호를 끌어낼 '게임 체인저'로 여기고 있다. 후발 자동차 업체마저 전고체 배터리를 확보하면 단박에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를 앞세워 차세대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선점한 곳은 일본 토요타다. 순수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에 집중했던 토요타는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각각 경쟁상대로 꼽는 파나소닉과 토요타는 공교롭게도 지난해 5월 동맹을 맺고 '조인트벤처(JV)'를 구성했다. 올해 JV 공장을 설립하고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에 맞춰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선보일 계획도 내놨다. 나아가 일본 마쓰다와 스바루 등 완성차 메이커가 개발 중인 전기차에 토요타-파나소닉 JV의 전고체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결국,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각각 경쟁상대로 꼽는 일본 기업이 동맹을 맺은 만큼,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배터리 협력체 구성은 당위성을 확보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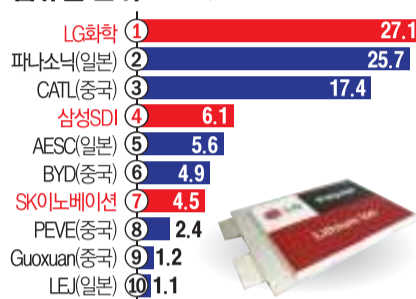
토요타와 파나소닉 JV가 시장 선점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대차와 삼성전자 역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2025년이면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양산 전기차 시장에 팔릴 것으로 보인다. 충전시간이 관련인데 양산전까지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한 주행거리가 지금보다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별 순위 및 판매 (단위: 대, 2019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기업별 점유율 순위 (단위: %, 2020년 1분기 기준)



삼성전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원천 기술을 개발, 최근 국제적 과학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에 관련 기술을 게재했다. 현재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기업은 파나소닉이다. 현대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차세대 전기차 시대의 게임체인저가 될 '전고체 배터리'가 절실한 현대차는 이를 바탕으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개발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 업계는 전고체 배터리를 전기차 시장 판도변호를 끌어낼 '게임 체인저'로 여기고 있다. 후발 자동차 업체마저 전고체 배터리를 확보하면 단박에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를 앞세워 차세대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선점한 곳은 일본 토요타다. 순수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에 집중했던 토요타는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각각 경쟁상대로 꼽는 파나소닉과 토요타는 공교롭게도 지난해 5월 동맹을 맺고 '조인트벤처(JV)'를 구성했다. 올해 JV 공장을 설립하고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에 맞춰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선보일 계획도 내놨다. 나아가 일본 마쓰다와 스바루 등 완성차 메이커가 개발 중인 전기차에 토요타-파나소닉 JV의 전고체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실리 추구 '3세 경영인'... 재계 사업협력 '롤모델' 제시

양사 총수 사업 목적 첫 회동 완성차-전장산업 시너지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의 이번 회동은 배터리 협력을 넘어 재계 전반으로 사업 협력 관계를 넓힐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1968년생인 이 부회장과 1970년생인 정 수석부회장은 실제로 친분이 두터워 사석에서는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수석부회장이 삼성 사업장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

특히 두 그룹 총수가 사업 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 초청 행사 등에서는 주요 그룹 총수로서 동석한 적은 있지만, 삼성과 현대차의 차세대 총수로서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는 전무했다. 양 사의 주력 분야가 전자, 자동차로 다른 만큼 대대적인 협업에 나선 적도 없었다. 삼성과 현대차의 관계는 1990년대 후반 삼성이 완성차 사업에 진출하면서 협력보다는 갈등 쪽에 가까웠다.

이후에도 이 부회장 주도로 삼성전자가 2016년 12월 약 9조 원을 들여 자동차 전장 회사인 하만을 인수하자 현대차는 신차 일부의 JBL·렉시콘·하만카돈 등 하만의 카 오디오를 다른 브랜드로 바꾸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는 삼성이 완성차에 뛰어들었을 때 다양한 직종에서 인력 유출을 겪어 불편한 심정이 이어졌다"며 "하지만 이 부회장과 정 수석 부회장 등 3세 경영인은 실리를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어 앞으로 협력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차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삼성의 반도체나 5G네트워크 기술과 협력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삼성 역시 배터리 외에도 하만의 전장 사업이나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현대차와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필요하다. 삼성 한 관계자는 "현대차와 삼성은 국내 기업을 대표할뿐더러 각각 완성차와 부품이 주력인 만큼 협력이 필요하다"며 "두 부회장이 만난 것도 향후 발전적인 관계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써보자는 것이 아닐까"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장애라는 무거운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행복한 일터, 편견과 차별을 버리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장애인고용 30년, 함께 하는 도약 1990-2020 ☎ 1588-1519 www.kead.or.kr
---	---	---	---	--

해고·휴업·취업실패... 220만명 직간접 '고용 타격'

통계청 '4월 고용동향' 분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피해는 취업자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장의 조업 단축·중단으로 휴직한 취업자, 채용 연기·취소로 취업에 실패한 구직자도 직간접적인 피해자다. 코로나19 확산 전까지 고용시장이 회복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휴직자와 취업 실패자 등을 포함한 전체 피해 규모는 2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47만6000명 줄었다. 취업자 감소는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산업별로 숙박·음식점에서 21만2000명, 도·소매업에서 12만3000명 줄었고, 직업별로는 판매종사자가 13만2000명, 서비스종사자는 11만 명 감소했다.

이들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큰 대표적인 산업·직종이다. 임시·일용직은 4월 78만3000명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활동과 대면거래가 급감한 탓이다. 기저효과로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던 제조업도 3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단 취업자 증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영향은 제한적이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취업자 감소는 일자리의 수만 따지는 것이니, 실제로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보려면 일시

숙박·음식 21만명, 도소매 12만명 ↓ 취업자 감소, 서비스·일용직에 집중
코로나 발생 전 고용 회복세 고려한 기대 취업자수 포함 땀 피해폭 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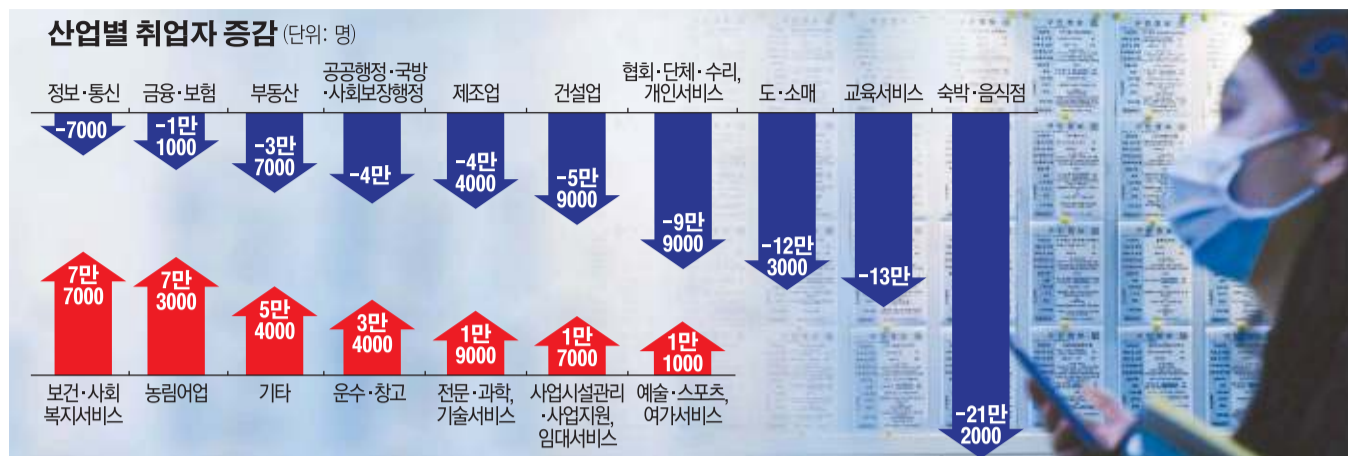
휴직자, 취업시간 등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취업시간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651만3000명 급감했다. 단순 증감으로만 보면 감소분 중 490만6000명은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이동했고, 113만 명은 일시휴직자가 됐다. 출입국 제한으로 항공·호텔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초·중고교 등교개학 등이 미뤄져서다.

다만 근로시간이 감소한 651만3000명을 전부 피해자로 보긴 어렵다. 코로나19와 별개로 근로시간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로 근로시간이 줄었어도 임금이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다. 취업자별 근로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집계 안 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일시휴직자 증가분 113만 명 정도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다고 특정할 수 있다.

여기에 고용시장 개선세를 고려하면 취업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채용이 연기·취소되면서 비경제활동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인구조도 있다. 대표적으로 구직 단념자가 12만4000명, 취업준비자는 9만5000명 늘었다.

물론, 이들이 모두 코로나19 영향을 받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13일 서울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에서 구직자가 취업정보를 보고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았다고 보긴 어렵다. 취업자 감소분과 중복 집계될 수 있고,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이 없어도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는 매달 변동이 있어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추세적으로 볼 때 증가폭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취업 실패자는 기존 취업자 증감 추이로 유추해볼 수 있다. 올해 2월까지 취업자 증감은 기저효과와 영향을 많이 받았

다. 올 들어선 1월 취업자 증가폭이 56만8000명까지 확대됐고, 2월에는 49만2000명으로 다소 축소됐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폭은 각각 1만9000명, 26만3000명이었다. 4월은 지난해 증가폭이 17만1000명에 불과했다. 2월보다 기저효과가 크단 의미다. 1·2월 추세가 유지됐다면 올해 4월 취업자 증가는 50만 명을 웃돌았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감소분과 일시휴직자 증가분,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기대됐을 취업자 증가분을 모두 더하면 220만 명을 넘는다.

그나마 일시휴직자 증가폭은 5월부터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과장은 "향후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며 "5월 이후로는 교육서비스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재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한경연 '성장위축, 경제 주체별 영향'

성장률 1%p 하락 시마다 초래될 경제 주체별 영향

* 출처: 한경연 추정

	가계	기업	정부·사회			
월소득(만 원)	금융부채(만 원)	신생기업수(100개)	코스피 시총(조 원)	세수(조 원)	빈곤인구(만 명)	
변화폭	-10.0	657.0	-79.8	-97.3	-3.3	14.9
변화전	439.9	8579.8	9198.5	1344.0	293.6	788.8

성장률 1%P 하락엔 가계빚 660만원 ↑ 신생기업 8000개·코스피 시총 97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성장 위축이 가계 금융부채 증가와 소득 하락을 초래하며 빈곤 인구를 늘릴 수 있어 총체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성장위축이 경제주체별 주요 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P) 떨어질 때 가계 부문에선 금융부채가 657만 원 늘어나고 월소득이 10만 원 씩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 측면에선 신생기업 수가 7980개 사라지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97조3000억 원 증감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정부·사회 부문에서는 국세수입이 3조3000억 원 감소하고, 상대적 빈곤 인구수(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수)는 14만 9000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탄성치를 살펴보면 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가계부채에서 실질 월가계소득이 2.3% 감소하고, 실질 금융부채비율이 6.9%P 높아졌다.

기업 부문에서는 활동 기업 수 대비 신생 기업 수 비율인 '기업 신생률'이 0.1%P 하락하고, 실질 코스피 시가총액이 7.2% 감소했다.

정부·사회 부문을 보면 실질 국세수입이 1.1% 감소하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비율인 '상대적 빈곤율' 증가율이 1.9%P 높아졌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소비진작책뿐만 아니라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기침체가 생산기반 자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성장 요인별 중장기 대책으로 노동투입의 경우 유휴 노동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고령자 및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재교육,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실시하고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 규제를 완화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투입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경쟁력 있는 법인세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추세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생산기반 잠식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다시 쓰는 스펙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리스펙 KORANDO 출시!

요즘 가족, 요즘 SUV

KORANDO

5월 선착순 코란도 특별혜택

최대 10% 할인 or 60개월 무이자 할부

*인정수령 전액으로 조기미납할 수 있음. L/C

고급 편의사양 기본적용

리스펙 코란도

인텔리전트라이프를 위한 커넥티비티 서비스 INFOCONN 탑재

코란도고인전반! 첨단자율주행시스템ACC7면사양

안전이 즐거움을 높여주는 안전시스템 미러링 LED미러 조명7면사양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8244121 | 긴급 통용 서비스: 080-500-5562 | www.smmotor.com | 본문의 *1~*10는 기본형, *11~*14는 고급형, *15~*18은 프리미엄형, *19~*22는 플래티넘형, *23~*26은 울트라 프리미엄형, *27~*30은 울트라 프리미엄형, *31~*34는 울트라 프리미엄형, *35~*38은 울트라 프리미엄형, *39~*42는 울트라 프리미엄형, *43~*46은 울트라 프리미엄형, *47~*50은 울트라 프리미엄형, *51~*54는 울트라 프리미엄형, *55~*58은 울트라 프리미엄형, *59~*62는 울트라 프리미엄형, *63~*66은 울트라 프리미엄형, *67~*70은 울트라 프리미엄형, *71~*74는 울트라 프리미엄형, *75~*78은 울트라 프리미엄형, *79~*82는 울트라 프리미엄형, *83~*86은 울트라 프리미엄형, *87~*90은 울트라 프리미엄형, *91~*94는 울트라 프리미엄형, *95~*98은 울트라 프리미엄형, *99~*100은 울트라 프리미엄형

손경식 회장 “기업들 출혈경영... 법인세 내려달라”

“유동성 지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뤄져야”
기업 규제완화·투자세액공제 등 정부에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총은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에 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총은 13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경총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회장단사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월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회장단 회의가 경총의 주요 정책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로 격상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손경식(사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세계는 국내적·국제적인 인적 교류가 차단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글로벌 공급망도 교란되는 등 경제 활동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과 같은 상황의 호전 없이는 미래 불확실성 속에 경제활동이 계속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내년 이후까지도 세계 경제가 코로

나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입 의존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며 글로벌 밸류체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2분기에는 기업 매출 격감과 영업이익의 대규모 적자전환을 비롯한 소비, 생산, 투자, 고용 등 실물경제 지표 악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손 회장은 “많은 기업이 현재와 같은 출혈 경영 상태가 몇 개월 더 지속된다면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경영안정자금과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만큼’, 그리고 충분한 규모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질서와 관련해선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환경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탈세계화’ 같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 회장은 “기업 환경의 상징적 지표인

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한 적정 수준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미래 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함과 아울러, 규제개혁 역시 선도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 정책적 의미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보다 유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율적 기부도 각자의 위치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좋은 취지인 만큼, 회원사에서도 많은 기업인, 경영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주요 회원사와 업종별 단체에서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에 대해 건의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경총은 이 같은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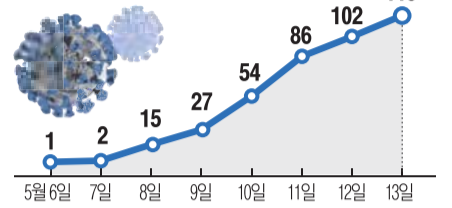
이날 수렴된 건의사항에는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제도 및 이월결손금제도 개선 △근로시간제도 개선 △화평·화관법 규제 완화 △전력산업기반금 부담률 인하 등 총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송영록 기자 syr@

고강도 행정명령 ‘약발’ 먹혔나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 2.2만건

가족·동료 등 ‘2차 감염’ 43명
개학 앞두고 10대 확진자 발생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추이
(단위: 명, 13일 낮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관련자들의 자진 검사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이번 이태원 사태가 2차 감염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등교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10대 감염자까지 발생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정오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는 119명이라고 밝혔다. 클럽 방문자가 76명, 가족과 지인, 동료 등 접촉자의 2차 감염이 4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3명, 인천 15명, 충북 5명, 부산 4명, 전북 1명, 경남 1명, 제주 1명 순이었다. 이날까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약 2만2000명에 달했다. 추가 검사가 이어지면 확진자 수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자발적인 검사 참여와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가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전파로 인한 지역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항만에도 ‘K방역’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해상 교역량이 줄었음에도 부산항 환적화물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들에 따르면 4월 신항과 북항 9개 부두에서 처리한 환적 컨테이너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8% 늘었다. 운영사들은 한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코로나 방역이 항만 물동량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은 13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연합뉴스

장·차관 ‘포스트 코로나’ 논의 시기상조

“코로나 극복에 집중할 때”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12일 국토연구원을 방문했다.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국토와 교통 분야에 미칠 미래 예측 시나리오와 대응 방향을 진단하고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선도할 교통 분야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4월 말부터 정부부처 장차관들이 잇달아 포스트 코로나 관련 회의를 열고 있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명대를 넘으면서 재확산 기미를 보여 전시 상황에서 경제회복 대책을 논의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의 장차관 일정을 보면 코로나19 대책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회의 관련 일정이 빠빠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5일 제3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대

회를 주재하고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13, 15, 18일 각각 해양수산 분야-업계와의 토론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전쟁으로 치면 아직 전시 상황인데 포스트 코로나로 모두 달려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간산업 안정자금 기금의 경우 이달 12일야 국회회의를 통과하는 등 이제야 지원을 시작하는 상황이다.

민주연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우석훈 박사는 “포스트 코로나를 다들 얘기한다”며 “지나친 속공”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방역만 신경쓰면 코로나가 막상 종식됐을 때 준비가 늦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K-방역, K-바이오 같은 자금부터 코로나 이후까지 계속 써줄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가스공사의 ‘개방형 소통’

공모전 ‘챗봇 서비스’ 등 채택
맞춤형 정보 24시간 제공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천연가스를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한국가스공사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경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고자 국민 제안이 혁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기관 운영에 국민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기반으로 개방형 소통 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국민 아이디어를 듣고 공사 경영에 접목해 성과를 낸다는 목표로 2018년 ‘KOGAS 혁신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당시 최우수작은 ‘KOGAS 챗봇 서비스를 통한 소통 및 참여 활성화 방안’이 차지했으며 가스공사는 이를 실제 사업으로 추진했다. 특히 82건의 아이디어 중 취약계층 간이소화기 지원, 한부모 지원사업 등 우수 아이디어에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6월 대구 본사에서 지역 전문가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제1회 상생협력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 한국가스공사

대해 포상을 수여하고 2019년 추진사업으로 직접 반영했다.

‘KOGAS 챗봇 서비스’는 ‘KOBOT’이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사용자 의도를 이해하는 대화형 시스템으로 지난해 12월 가스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정보 요청사항에 대한 맞춤형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서비스 초기 단계로 가스공사는 지속해서 챗봇 서비스를 개선해 상담업무 효율과 소통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지난해 상생협력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는 물론 전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상생협력 사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시민보고회를 열고 시민참여형 사업의 일환인 상생협력 사업 브랜드 명 및 신규 아이디어 사업을 선정했다. 당시 총 84건이 접수됐으며 가스공사는 대상으로 선정된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이동권 확보’ 사업을 추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1조2000억 투입 ‘K-바이오’ 키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K-방역’, ‘K-바이오’ 등 한국 의료가기와 의료 서비스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까지 6년간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가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K-방역, K-바이오 등 국산 의료가기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

가 높아진 것을 기회로 삼아 의료가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핵심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품목 지정,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과 요소기술 개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도전적 기술 개발, 인허가 지원 등이다. 특히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인공 호흡기, 심폐순환보조장치(에크모) 등의 핵심 부품 기술 개발과 호흡기 질환 제외 진단기기 개발 등을 선제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이낙연 “언택트산업 급속 발전… 규제완화·행정지원 필요”

“스마트팩토리·온라인 수업 등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어 비대면산업 본격 가동 전 준비 필수… 정부도 지원해야”

“코로나19가 비대면산업의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하고 범위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준비와 행정지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이낙연(사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언택트(비대면) 산업은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온라인수업 등 비대면산업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며 “코로나19가 (비대면 산업)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하고 범위를 더 넓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재정·행정적 지원 및 규제 완화가 모두 필요하다”며 “21대 국회는 개헌까지는 아니어도 (비대면 산업의) 본격 가동 이전에 상당한 준비



를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책 지원, 재정 행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도와 달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 모든 방향이 비대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창업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등 대면산업도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정부가 7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 정책의 하나가 바로 언택트산업 육성”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언택트 산업을 위해 민간에서 최대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환자의 동선을 파악해 역학조사 등을 신속히 할 수 있었던 바탕에

는 국가의 우수한 ICT 인프라가 있었다”며 “이미 국내에 150개가 넘는 언택트 솔루션 기업이 있고 이들은 외국 대기업보다 영세하지만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김태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 산업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는 제도개선, 규제혁신도 따라가야 한다”며 “혁신산업은 이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형태로 나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민주당 코로나19위원회 비대면경제TF단장은 “언택트 산업은 교육이나 정보보안에만 국한되는 이슈가 아니라, 화상회의·재택근무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나아가 사람과 사람의 소통방식을 전환하는 사회 전반의 혁명”이라고 피력했다.

김진표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 본부장은 “(비대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21대 국회 의 소명이라 본다”며 “6월 국회 시작 전에 정부 여당이 힘을 모아 규제 혁파 입법의 준비를 완결하면 G20 국가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민경욱 공개 투표용지, 구리시 선관위서 유출 선관위 투표용지 관리 허술 ‘도마위’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 개표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관리 실태가 허술한 것이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같은 투표용지 유출 사건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본투표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뒤 남은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봉인용 테이프를 이용해 봉인하게 된다. 개표 작업 동안 개표소의 별도 공간에 임시 보관되고, 개표가 끝나면 구·시·군 선관위가 이를 가져가 창고 등에서 봉인 상태로 보관하게 된다.

이번에 사라진 6장의 투표용지를 포함해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역시 투표가 끝난 후 봉인돼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으로 옮겨져 체육관 내 체력 단련실에 임시 보관됐다. 이후 개표 작업

중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가 불일치하는 점이 드러나 선관위 직원이 봉인된 봉투를 한 차례 열어 잔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했다. 이때 문제의 6장은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어떻게 투표용지 6장이 사라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당시 체력단련실 입구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가 없고, 이를 관리한 별도의 인력 배치도 없었다는 게 선관위 측 입장이다. 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잔여투표용지 등 투표 관련 서류를 선거 가방에 넣어 별도 지정 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게 통상적이다.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탈취 행위에 대해 중대한 범죄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할 예정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6·25 참전용사 지원 마스크 美 도착 우리 정부가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 용사와 그 가족들을 위해 보낸 마스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날 “우리 군 수송기를 통해 50만 장의 KF94 마스크가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며 “공군기지에서 마스크 전달식이 열리며 정부인사와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주미한국대사관

‘윤미향 논란’ 與野 프레임 대결

야 “진보의 부패” 연일 공세 여 “친일 세력의 역사 감추기”

윤미향(사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점점 전선을 넓히고 있다. 보수 야권이 이번 사안을 ‘진보 진영의 도덕성’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연일 공세를 강화하자 일부 여권에서는 ‘친일 대 반일’ 구도를 꺼내 맞불을 놓았다. 이번 사안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며 ‘진보’ 대 ‘보수’ 이념대결로 확대되는 것이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에 대한 의혹은 7일 일분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용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할머니는 수요 집회 기부금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고 피해자에게 성금이 쓰이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정의연의 기부금 회계처리 의혹으로 이어졌고 윤 당선인 딸의 유학 비용 논란도 불거졌다. 여기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윤 당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태가 커졌다.

보수 야권은 연일 “기부금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며 윤 당선인을 향한 공세를 강



화하는 중이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진상규명위원회 형태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박상도 통합당 의원은 13일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발간한 소식지의 편집 디자인을 윤 당선인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맡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권은 윤 당선인에 대한 의혹 제기 대해 ‘친일 프레임’으로 맞섰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날 페이스북에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최후 공세를 펴고 있다”며 옹호하고 나섰다. “완전하게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나라의 슬픈 자화상”(송영길 의원), “일부 언론과 친일 세력의 부끄러운 역사 감추기 시도”(이수진 당선인)라며 지원 사격도 이어졌다. 윤 당선인도 “보수언론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모략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6개월간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유종현 기자 lamuziq@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올칸두잇! 올원뱅크! ♪

금융부터 다양한 생활 혜택까지!
올원뱅크의 무한능력을 만나볼까요?

- ▶ 하나. 무료할 때 VOD, 웹툰, 웹드라마를 무료로 즐긴다
- ▶ 둘. 타행 계좌 조회부터 이체까지 금융을 손쉽게 해결한다
- ▶ 셋. 원하는 환율일 때 환전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쓴다
- ▶ 넷. 생활 속 유용한 상품을 최대 90% 할인로 구매한다

무한능력 생활금융 플랫폼 **올원뱅크**

QR코드로 간편하게 올원뱅크를 검색해보세요

*무료 코인 제공으로 현금 감산 가능 *추첨을 통해 될 수 있음 구매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일: 2020181920200428~20220425 *서비스 관리 부서: NH농협은행 올원뱅크센터C&E

NH농협은행

**함께 만드는 건강한 대한민국
농협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재개" 딜레마

“서두르단 감염 폭발”

닥터 파우치 “가을 재유행엔 고통과 죽음”
“방역지침 유지” 강력 주장... 美 증시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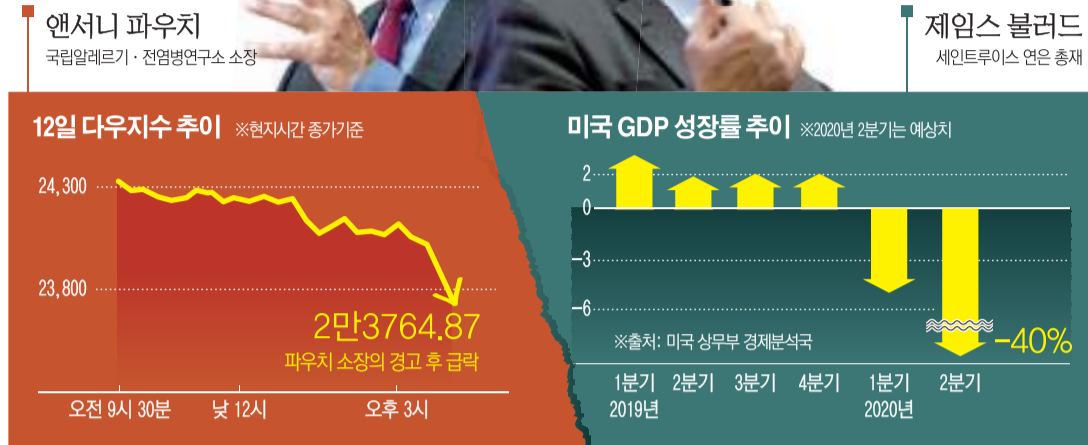
한동안 경제 재개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12일(현지시간) ‘닥터 파우치’의 조기 경제 재개 위험 경고에 급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고개를 든 가운데 2차 감염 폭발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자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통령’으로 떠오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이날 상원 보건·노동·교육·연금위원회 청문회에서 화상으로 증언했다. 그는 “지침을 무시한 조기 경제 재개는 코로나 확산을 제어할 수 없는 형태로 재발시킬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고통과 죽음을 초래해 경제 회복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무서무서한 예측을 내놓았다.

파우치 박사의 발언은 경제활동 재개를 애타게 기다렸던 시장을 실망시켰다. 이날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89%, S&P500지수는 2.05% 각각 급락했다. 나스닥지수도 2.06% 빠졌다.

퀀스 크로스비 푸르덴셜파이낸셜 수석 시장 투자전략가는 “시장은 경제가 어떻게 다시 문을 여는 지 관망하고 있다”며 “파우치 박사의 청문회 증언은 경제활동을 너무 빨리 재개하면 코로나 환자가 다시 늘어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시장 참가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가을 독감 시즌에 코로나19가 함께 확산하면서 지금보다 더한 2차 감염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며 향후 수개월 간 ‘사회적 거리두기’ 경계를 늦추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재개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RSM의 조 브루수엘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물경제와 증시 사이의 괴리가 수년간 이어졌지만 코로나 사태로 더 뚜렷해졌다”고 꼬집었다. 리서치 업체 레피타티브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의 주가 수익비율(PER)은 현재 22.5배로, 닷컴버블이 붕괴했던 2000년 10월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다.

이에 뉴욕증시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골드만삭스마저 올 여름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수석 미국 증권 투자전략가는 “미·중 갈등 재고조와 너무 높아진 증시 밸류에이션 등 이번 봄 투자자들이 크게 개의치 않았던 리스크들이 있다”며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코로나19다. 뉴욕 이외 지역에서 감염자가 늘고 있고 이동제한 완화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미적대면 경제 파탄”

블러드 연은 총재 “2분기 GDP 40%↓ 우려”
금융당국자 “폐쇄 장기화엔 기업 연쇄파산”

했다. 그럼에도 블러드 총재는 올해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40%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수치에 대해 “놀라운 수치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 경험한 어떠한 마이너스 성장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라며 정부의 기업 폐쇄 명령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의 주요 경제, 특히 미국 경제에서 장기간 ‘정지 버튼’을 누를 수는 없다”며 “이러한 정책의 유효기간은 90일 내지 120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사카리 총재도 온라인 이벤트에서 건강과 의료에 대한 우려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 활동이 계속 제약받으면 경기 회복은 더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이 바이러스를 둘러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때까지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들쭉날쭉한 회복을 천천히 이어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세 총재 모두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블러드 총재는 유럽과 일본의 예를 들며 “자산 매입이 더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혜택을 보는 가운데, 미국도 선물을 받아들이어야 한다”며 연준에 추가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3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행사 강연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하나 되어 노력해야 많은 기업 파산과 실업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코로나+유가쇼크’서 경제 지켜라
노르웨이, 국부펀드로 46兆 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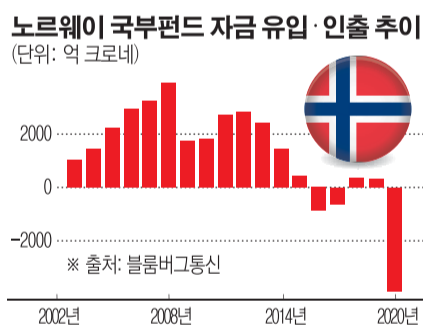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에 직면한 노르웨이가 자국 국부펀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인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국제유가 폭락 등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한 실탄 마련에 나선 것이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이날 2020년 개정 예산안을 발표하고 자국 국부펀드에서 3820억 크로네(약 46조1200억 원)를 인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직전 최대치였던 2016년의 4배가 넘는다.

서유럽 최대의 원유 수출국인 노르웨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세계 원유 시장 붕괴 여파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에 직면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약 1조 달러를 굴리는 자국 국부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이다. 노르웨이 재무부 대변인은 “올해 국부펀드의 현금 흐름이 약 2490억 크로네로 추산된다”며 “1330억 크로네 규모의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SEB의 에리카 달스토 수석 투자전략가는 “이는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라며 “그러나 노르웨이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위기 상황에도 직면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는 봉쇄 정책과 유가 붕괴로부터 야기된 파급효과와 함께 노르웨이 경제를 강타한 이중고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매각 대상은 주로 채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 유동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펀드 전체 포트폴리오 중 주식 투자 비중이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주식 비중은 목표치 이하로 내려간 상태여서 오히려 더 채워 넣어야 한다.

그동안 노르웨이 정부는 매년 머니로 벌어들인 수입을 국부펀드로 이전해 왔다. 2016년에는 유가 폭락으로 수입이 줄어들자 국부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해 재정에 보태기도 했다. 당시에는 현금 흐름이 좋아 재정 적자를 커버하기가 수월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이 역전됐다. 국제유가 폭락으로 석유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휘청이면서 재정 투입이 늘어났다. 노르웨이는 올해 석유 수출 등을 통한 순현금흐름이 62% 감소한 980억 크로네로,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다 노르웨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4200억 크로네를 경기부양에 투입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4년 만에 국부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하기로 한 이유다.

노르웨이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출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권에 진입하는 등 폭락하면서 노르웨이 경제를 흔들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코로나 블루’ 견인 파리... 봄날 만끽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억제를 위한 이동 제한 조치를 완화한 다음 날인 12일(현지시간) 파리 시민들이 사크레퀴르 대성당 주변에 앉아 봄날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조깅하는 사람도 눈에 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철저한 대비책이 없는 선부는 봉쇄 조치 완화는 제2의 감염 폭발을 부를 것”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경계를 당부했다. 파리/AFP연합뉴스

우버, 음식배달업체 ‘그럽허브’ 인수 추진

차량공유 사업 활로 모색... 합병 소식에 그럽허브 주가 29% ↑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테크놀로지가 미국 음식배달업체인 그럽허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핵심인 차량공유 사업이 주춤하자 라이벌 업체와의 음식배달 서비스 통합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모습이다. 현재 우버도 산하 우버이츠를 통해 음식배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장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우버는 2월 그럽허브에 처음으로 주식교환 형태로 합병하는 방안을 타진했고, 지금까지 논의를 계속해왔다. 다만, 그럽허브가 자사 주식 1주당 우버 주식 2.15주를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우버가 너무 높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양측은 그럽허브의 제안가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버와의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배준호 기자 baejh94@

그럽허브 주가는 이날 29% 폭등해 시가총액이 55억 달러(약 6조7300억 원)로 늘었다. 우버도 2.4% 급등해 시총이 562억 달러에 이르렀다. 다만 우버 주가는 현재 32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지난해 증시 상장 당시 기업공개(IPO) 공모가인 45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WSJ은 우버와 그럽허브의 통합이 실현되면 코로나19로 중요도가 높아진 음식배달 산업을 재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음식배달 시장은 그럽허브와 우버이츠, 포스트메이츠, 도어대시 등 4개사가 메이저로 분류된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아프면 어떡해요?”

“나 때문에 가족이 걸리면 어찌죠?”

하루 2만여 건의 상담전화 중 대부분은
이웃을, 친구를, 가족을
걱정하는 전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명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진 마음이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도록
SK하이닉스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 설치’ 내달 30일부터 의무화

금감원-보험업계 협의 ‘모범규준’ 신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조사업무 때 지켜야 하는 모범규준을 신설한다. 지난해 보험상품 개발 과정에서의 모범규준을 제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사업무 때 지켜야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조사업무 부서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만큼 어느 정도의 권한도 부여해준다.

다만 보험업계는 금감원 전담 인력이 바뀔 때마다 모범규준을 새롭게 제정해 혼란이 가중된다는 보험사기 관련 모범규준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30일부터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 내려준 초안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가 협의해 제정한 안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 설치가 의무화된다. 조사전담부서는 기존 보상조직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조사전담부서에는 막강한 권한도 부여한다.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임직원에 대한 특정한 조치

사기 관련 임직원 협조 요청 등 보상조직과 달리 독립 권한 부여 인력 부족, 전담직원 지정 가능 ‘매년 바뀌는 기준안 통합 필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규모 등을 고려해 조사전담부서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전담직원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재 일부 소형사의 경우에는 인력상의 한계로 보험사기 조사만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곳도 있다.

보험사기 조사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도 규정된 모범규준을 따라야 한다. 보험사기 조사자는 보험회사와 조사자의 보험사기 인지→조사 진행→조사결과 처리→사후관리까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밖

에도 조사과정상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에 한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분쟁방지 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 밖에도 조사전담부서 책임자는 필요 시 조사원 등에 대한 핵심 평가지표(KPI) 조정을 포함한 평가·보상체계 개선을 건의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험사기 제보의 접수 업무를 처리할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이 같은 보험사기 조사 모범규준은 법규가 아니므로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상품 개발, 판매 단계에서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체계적으로 모은 보험사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모범규준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모범규준이 매년 새롭게 제정되고 있는데, 부서별로 달라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다”며 “보험사기 통합 모범규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더 두터워진 ‘금융사 제재 방어권’

임직원 등 참고인 진술신청권 부여 당국, 검사연장 이유도 밝혀야

앞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금융사에 대한 방어권이 두텁게 보장된다. 검사처리 기간을 표준화하고, 당국이 검사연장 이유를 밝히도록 했다. 제재 대상자인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참고인 진술신청권도 부여해 방어권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등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검사 종류별로 검사 종료부터 결과 통보까지의 ‘표준검사처리기간’을 설정했다. 그간 금융사의 검사 종료 후 검사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금융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중합검사는 180일, 준법성검사는 152일, 평가성검사는 90일로 규정된다. 제재 사항이 없는 표준검사 시에는 중합검사와 준법성검사 기간은 각각 160일, 132일로 줄어든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했다. 다만 △제재대상자 의견청취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생기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교육조건부 제재면

제’ 제도도 도입된다. 법규 미숙자와 단순 과실 등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금융사에 대해 확실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율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유사 위규행위의 재발 방지와 금융의 경쟁·혁신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제도는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규정 시행 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에 대한 열망 기간도 늘어난다. 금융사와 임직원은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에 볼 수 있던 제재안건을 ‘5영업일 전’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제재심에서 제재 대상자에게 참고인 진술신청권도 부여된다. 제재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제도 명문화된다. 객진산 기자 jinsan@



대한민국 기업을 위하여! 원격근무 성공을 위하여! 재택근무 통합패키지 무상제공

· 본 서비스는 IC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기간: 2020. 06. 30까지)
·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의 소통과 협업에 특화된 12가지 서비스만 선별하여 업무 단절이나 보안 문제 없이 효율적인 원격근무 통합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WEHAGO 홈페이지(www.wehago.com)에서 신청하시고, 회원가입 후에는 바로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빈틈없는 재택근무를 위한 12가지 무상제공 서비스</p> <p>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세종텔레콤 협력)까지 무료로!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업무환경을 12가지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해드립니다.</p>	<p>내 PC 원격접속</p> <p>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의 서버 또는 PC에 접속하여 원격 화면을 보며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원격 PC의 자료를 관리합니다.</p>	<p>채팅&메신저(WE톡)</p> <p>조직과 업무 단위로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고, 쪽지, 화상회의, 투표, 일정 공유, 웹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용 메신저입니다.</p>	<p>화상회의</p> <p>국내와 해외 어떤 지역이라도 PC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화상회의, 투표, 일정 공유, 웹오피스 등 다양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문자서비스</p> <p>거래처, 연락처와 연계되어 고객 및 거래처 그룹을 관리하고 대량 일괄발송 등 문자 기반의 다양한 마케팅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입니다.</p>
	<p>팩스</p> <p>팩스기가 없어도 인터넷 팩스를 통해 수신되는 팩스 내용을 읽고 빠르게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p>	<p>메일(1G)</p> <p>개인 메일은 물론, 회사 메일까지 통합 관리하고, 간편하게 회사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전용 메일 서비스입니다.</p>	<p>전자결재</p> <p>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결재 양식을 제공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해 비대면 요청이 가능하며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p>	<p>웹오피스</p> <p>한국, 역성, 파워포인트, 워드 등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웹 기반 오피스입니다. 이제 설치해서 쓰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WE드라이브(10G)</p> <p>회사 내 파일과 문서를 동료들과 쉽게 공유하고 검색하며, 웹 오피스를 통해 편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업용 파일저장소입니다.</p>	<p>일정관리</p> <p>일정 초대와 공유 캘린더를 통해 동료들과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일정과 관련된 위치, 자료, 태그, 참석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협업합니다.</p>	<p>할일관리</p> <p>해야 할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종료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자는 지시한 업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p>	<p>기본정보관리</p> <p>조직도를 통한 직원검색, 수방은 거래처, 연락처의 통합관리 및 자동 업데이트/공유, 다양한 타인의 회사계산 등 기본정보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p>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가지 언어를 지원합니다.

(NIM) 최악의 ‘님’ 1분기 국내은행 순이자마진 ‘역대 최저’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인 10조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순이자마진(NIM)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순이자마진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0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9조 900억 원) 대비 1000억 원 감소했다. 순이자마진하락(-0.15%p)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8%)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분기부터 순이자마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1.46%로 역대 최저 수준을 시현했다.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

1.2%)으로 확인됐다. 유가증권관련 이익이 감소(-2000억 원)하고 외환 파생상품관련이익은 증가(2000억 원)했으나, 2019년 1분기 중 일회성 회계 처리 요인을 제외할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전년 동기 수준이다. 작년 3월 산업은행이 현대상선 영구채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양도하면서 해당 거래의 평균순익을 유가증권매매이익과 파생상품관련손실로 처리한 영향이다.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 증가 영향

1년세 0.15%p 하락한 1.46%

이자익 전년 동기 비슷한 10兆

당기순익 3.2兆... 7000억 감소

국내은행의 당기순익은 3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4조 9000억 원) 대비 7000억 원 감소(-17.8%)했다.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당기순익은 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5000억 원) 대비 1000억 원 증가(2.0%)했다.

영업이익은 대부분 손익항목이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나, 대손비용은 3000억 원 증가했다. 영업외손익은 자회사지분손실 등으로 확대됐다.

서지연 기자 sjy@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조 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B)	증감(B-A)		
			1분기(A)	2분기	3분기	4분기		금액	증감률	
국내은행	11.2	15.6	13.9	4.0	4.4	3.7	1.8	3.2	-0.7	-17.8
일반은행	8.4	9.6	10.0	2.5	3.0	3.1	1.4	2.6	0.1	2.0
시중은행	7.6	8.6	9.0	2.2	2.7	2.8	1.3	2.3	0.1	3.8
지방은행	0.9	1.0	1.1	0.3	0.4	0.3	0.1	0.3	-0.0	-13.4
인터넷은행	-0.2	-0.1	-0.1	-0.0	-0.0	-0.0	-0.0	-0.0	0.0	적자폭 축소
특수은행	2.8	6.1	3.9	1.4	1.4	0.6	0.4	0.6	-0.8	-53.8

※출처: 금융감독원

www.wehago.com

대한항공, 1조 유증...한진칼 참여 방안 관심

대한항공 2조2000억 자금 확보
한진칼은 오늘 유증 참여 논의
지분을 맞추려면 3000억 필요
자산 매각·담보 대출 등 고민



대한항공이 13일 이사회를 열어 최대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확정했다. 이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전당대서 바라본 계류장의 대한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정부가 최근 대한항공에 1조 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만큼, 한진그룹은 이를 포함해 총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3시간 동안 이사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2조2000억 원 규모의 자금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는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정부의 1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대한 자구안이 포함됐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우선 배정 후 실권주를 일반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은 3

년 만이다. 대한항공은 2015년과 2017년 각각 5000억 원,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다.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 수는 7936만5079주로 예상 주당 발행가격은 1만2600원이다.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대한항공의 전체 발행 주식은 기존 9595만 5428주에서 1억7532만507주로 증가하게 된다. 최종 발행가격은 7월 6일 확정되며, 신주 상장은 7월 29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유상증자에 대한항공 지분 29.96%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한진칼

이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한진칼은 현재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약 3000억 원의 유증 대금을 마련해야 하며, 14일 이사회를 열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참여 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한진칼의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523억 원)을 감안하면 자금 조달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진칼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 부동산 담보 대출 또는 매각은 물론 투자자(백기사) 확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또 대한항공 이사회는 이날 국책은행으

로부터 지원받는 1조2000억 원 규모의 차입 실행 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달 24일 이 같은 지원을 결정한 데 따른 자구안이다.

우선 항공화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700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과 주식 전환권이 있는 3000억 원 규모의 영구채권 발행 등이 결의됐으며, 2000억 원의 자산담보부 차입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추가적 자본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왕산마리나 운영사인 ㈜왕산레저개발 지분 등 회사 소유의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재편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최대 15%까지 할인 가능한 선별 항공권 판매를 지난달 17일 시작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전 임원이 최대 50% 급여를 반납한 데 이어 직원의 70%가량이 6개월간 휴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자구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각 부문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월 28만원에 '스팅어' 산다 기아차, 찻값 80% 3년 유예

기아자동차가 선수금 없이 월 28만 원으로 스팅어를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 '커스텀 플랜'을 13일 출시했다.

'커스텀 플랜'은 △선수금 제한 없이 신차 가격의 최대 80%까지 유예 △최저 3% 금리 △전 기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스팅어 전용 구매 프로그램이다. 기아차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신차 구매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에 대한 고객 부담을 크게 줄이고, 할부 납부금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중 스팅어 2.0 가솔린 터보 모델을 커스텀 플랜을 통해 구매하면 신차 가격의 80%(2750만 원)는 36개월 할부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달까지 유예하고, 이자와 나머지 가격(697만 원)을 3.5% 금리를 적용해 매월 약 28만 원씩 내면 된다.

특히, 추가 납부에 대한 중도상환수료가 없어 자금 사정에 따라 매월 자유롭게 추가 상환이 가능하고, 현대 M 계열 카드로 선수율 10% 이상 전액을 결제한 고객은 3% 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할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유예금이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신차 가격의 최대 64%(3년 기준)까지 중고차 가격을 보장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유창욱 기자 woogi@



LG채널, CJ ENM 30개 추가 국내 무료방송 112개로 늘어

LG전자가 인터넷이 연결된 LG TV에서 고객이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LG 채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LG전자는 최근 국내에서 제공하는 'LG 채널'에 CJ ENM의 30개 채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wavve)와 함께 제공해오던 82개 채널을 포함하면 LG 채널이 국내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채널은 모두 112개로 늘어났다.

LG전자는 최신 운영체제인 webOS 5.0을 탑재한 2020년형 TV 신제품부터 신규 채널을 지원한다. webOS 3.5/4.0/4.5 버전을 탑재한 기존 제품의 사용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연내 추가로 무료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LG 채널은 인터넷이 연결된 올레드 TV, 나노셀 TV 등에서 별도 셋톱박스를 연결하지 않아도 다양한 채널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유료 방송을 신청하기 부담스러운 1인 가구 또는 한 집에서 2대 이상의 TV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용하다.

LG전자는 해외서도 LG 채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북미에서는 180여 개 방송 채널과 2000편 이상의 영화다시보기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유럽, 중남미 등으로 확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 차세대 데이터센터용 SSD 발표...美 서버시장 재공략

'OCP 글로벌 서밋' 온라인 참여 코로나 확산에도 증설 수요 강세

삼성전자가 오픈 플랫폼을 앞세운 차세대 데이터 센터 메모리 기술을 소개하며, 서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지시간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OCP(오픈 컴퓨터 프로젝트) 가상 글로벌 서밋'에 참여해 차세대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제품과 전략 등을 발표했다.

OCP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초고효율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업향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표준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영향력이 큰 글로벌 프로젝트다.

페이스북 주도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컴퓨팅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데이터센터의 아키텍처를 오픈해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대형 데이터센터 업체와 부품업체 등 많은 멤버가 참여한다. OCP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과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OCP 글로벌 서밋은 3월 미국 산호세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행사를 불과 4일 앞두고 취소된 바 있다. 주최측은 올해 온라인을 통해 이번

트를 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이중열 삼성 전자 메모리사업부 연구위원(전무)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저장·처리하기 위한 삼성의 협력 노력을 공유했다.

이 전무는 "삼성전자가 OCP에 포함돼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낸드플래시를 데이터센터 고객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외부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오픈소스 플랫폼 레퍼런스 디자인(Open-source Platform Reference Design)을 연말 OCP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차세대 서버를 위해 설계된 새로운 NVMe SSD도 소개했다. 이 제품은 공간 활용도를 개선하고 속도와 용량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플래시 메모리 및 고급 NVMe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 전무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서버를 위한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토리지 솔루션이 되고,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서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서버용 반도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신규 서버 증설 수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LG화학, 노국래 본부장 등 인도 사고 현장지원단 파견

LG화학은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인도 현장 지원단 8명을 파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단은 생산·환경 안전 등 기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

LG화학 관계자는 "현장 지원단은 공장 안전성 검증 및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신속하고 책임 있는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단장은 피해주민들을 직접 만나 지원 대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학철 부회장은 우선 국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고 수습을 계속해서 총괄 지휘할 계획이다.

7일 새벽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 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됐다. 인근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주민 100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지 경찰은 탱크에 보관된 화학물질 스티렌 모노머(SM)에서의 가스 누출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간모한 레디안드라프라데시 주총리는 LG화학의 인도 공장 LG폴리머스에 1만3000톤(t) 분량의 스티렌 재고를 한국으로 반송하라고 명령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제주항공, 항공권 셀프 인식 '안전여행' 캠페인

뒷자리 승객부터 순차 탑승 비좁은 기내 접촉도 최소화

제주항공은 건강한 여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승객의 '셀프 바코드 인식'과 탑승간 '좌석 위치별 순차 탑승' 등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국내선 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항공 탑승객은 탑승게이트의 항공권 바코드 인식을 직접 해야 한다. 기존에는 탑승게이트에 있는 직원이 탑승객의 항공권을 받아 바코드를 인식했지만, 직원과 탑승객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바꿨다. 탑승객이 바코드 인식기 앞의 직원에게 항공권을 보여주면 직원이 눈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고객은 항공권 하단의 바코드를 직접 인식한 후 비행기로 이동하면 된다.

탑승 시 기내에서 승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좌석 위치별 탑승 순서도 엄격히 구분한다.

선착순으로 입장했던 항공기 탑승은 이날부터 우선 탑승 항공권을 소지한 고객이 먼저 탑승한 후, 20열 이후 좌석번호를 배정



김포공항 제주항공 탑승구에서 승객이 바코드 인식기에 항공권을 직접 대고 있다. 사진제공 제주항공

받은 고객이 탑승한다. 그 후 앞쪽 좌석을 배정받은 고객들이 마지막으로 탑승해 기내 이동 시 승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단 좌석 위치별 순차 탑승은 정시 운항일 경우에만 시행된다. 지연 등 비정상 상황이나 공항 사정에 따라 기존과 같은 선착순 탑승으로 진행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예약 상황에 따라 승객들의 좌석배치도 다르게 한다.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혼자 여행하는 고객은 창가와 통로 쪽 좌석만 배정한다. 3명 이상 동행할 경우는 한 줄 혹은 두 줄로 앞뒤 열을 비워 탑승객 간의 기내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SK에너지, 결제플랫폼 '머핀' 상표출원...디지털 전환 속도

정유 넘어 디지털 혁신기업 도전
주유·세차·주차·물류 등
3000개 주유소 서비스 통합

스마트 플랜트 구축도 착착
울산 원유탱크 점검 드론 도입
1기 검사비 1억→200만원으로

SK에너지가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 SK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머핀(Muffin)'을 선보이며 디지털 전환(DT)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SK에너지는 상표 '머핀'을 지난달 말 출원했다. 머핀은 자동결제서비스업, 모바일 및 인터넷 결제 서비스업, 전자지불결제대행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다.

SK에너지가 머핀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SK에너지 직원이 드론을 활용해 SK울산CLX 원유저장탱크 정기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에너지

SK에너지는 국제유가 하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석유 제품 수요 감소 등 외부 변수로 경영 환경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디지털 중심의 사업

전환을 위한 △운영 효율성 △친환경 △서비스 플랫폼 등 3대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조경목 SK에너지 사장은 "코로나19 확산 등 이제껏 겪지 못한 최근의 위기 상황은 일반적인 변화로는 극복하기 어렵

다"면서 "기존 정유 사업의 한계를 넘는 디지털 혁신(근본적 변화)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3대 전환 중에서도 머핀 서비스는 서비스 플랫폼과 관련성이 높다.

SK에너지는 전국 3000여 개 주유소에 자동차의 주유, 물류, 세차, 주차 등의 서비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머핀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한 것으로 선제적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이라며 "관련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SK에너지는 디지털 전환 전략에 따라 '스마트 플랜트'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SK에너지는 울산 콤플렉스(CLX)의 원유저장탱크 점검에 드론을 도입했다.

드론은 추락으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높고 원유저장탱크는 유증기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작은 충격에도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SK 울산CLX 검사 유닛(Unit)은 관련 부서가 애자일(Agile)하게 움직여 드론에 낙하산 장착, 공인 기관에서 배터리 충격 테스트 완료, 2차 배터리 폭발 방지를 위한 2중 프로텍터 설치, 2인 1조 운전으로 작동 오류 해소,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울산 내 업체 발굴 등 이중, 삼중의 안전 장비 및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SK에너지는 울산CLX 원유 저장탱크 정기검사에 드론 도입이 성공하면서 육안검사 대비 검사 정확도가 향상됐으며, 높은 곳에 사람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탱크 전체를 감싸던 인시가설물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SK에너지는 드론을 활용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검사가 예정된 탱크 30기에 대한 검사비용이 약 9억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75만 배럴 규모 원유저장탱크 검사비용은 기당 최대 1억 원이 들었으나, 드론을 활용하면 200만~300만 원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QM3 원조 '르노 캡처' 상륙 르노삼성엔 유럽 베스트셀링 콤팩트 SUV '르노 캡처(Renault CAPTUR)'를 13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국내에서 캡처의 전신은 르노삼성 QM3다. 캡처는 르노 브랜드의 로장주(마름모) 엠블럼을 달고 국내 출시되는 두 번째 승용 모델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연속 유럽 콤팩트 SUV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다. 가격은 1.5 dCi 디젤 엔진 모델이 2413만~2662만 원이며 TcE 260 가솔린 엔진을 얹은 모델은 2465만~2748만 원이다. 사진제공 르노삼성

르노삼성 '찾아가는 서비스'로 코로나 극복

정비·시승 시 요청 장소로 배달
전시장·AS센터 매일 정기 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 업계의 고객 응대 방식도 바뀌고 있다.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와 온라인 계약을 도입한 르노삼성 자동차의 아이디어가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스페셜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이 요청한 장소에서 정비가 필요한 차를 전달받아 정비를 끝내고 다시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를 인도해 주는 서비스다. 편도 기준 10km 이내이면 1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별도로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를 20% 할인한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르노삼성차가 2016년부터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도입한 비대면 온라인 청약 시스템도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최근 출시한 XM3는 전용 마이크로사이트 내 온라인 쇼룸 운영과 온라인 전용 사전 계약 혜택 등 모바일 세대 고객을 위한 마케팅으로 사전 계약의 약 24%를 온라인으로 받았다.

아울러 'XM3 드라이브 스루 시승 이벤트'도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24일까지 진행되는 'XM3 드라이브 스루 시승 이벤트'는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는 시승 방식으로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한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시승을 선택하면 영업사원이 직접 정기 소독을 끝낸 시승 차와 함께 고객을 찾아가 감염 걱정 없이 안전한 시승을 즐길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르노삼성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승에 참여한 모든 고객에게는 르노삼성차 멀티 아이스백을 증정하고, 이벤트 기간 중 XM3 계약 고객에게는 매일 1명을 추첨해 총 24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경품도 증정한다.

르노삼성차는 XM3 출시를 맞아 고객 방문이 증가한 전시장과 AS 서비스점에 대한 코로나 19 예방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전국 모든 전시장과 AS 서비스점은 매일 정기적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직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출고 차량 인체 무해 살균 소독, 방문 고객 체온 체크 및 손 소독제 사용 권고 등을 진행 중이다.

또한, 르노삼성차는 차량 관리를 위한 모바일 멤버십 앱 'MY 르노삼성'과 'MY 르노'에 커넥티드 기능을 추가했다. 'MY 르노삼성'과 'MY 르노' 앱은 차에 관한 정보와 멤버십 혜택 조회, 온라인 정비예약, 채팅 상담과 쿠폰, 이벤트 정보까지 제공한다. 이번 개편으로 커넥티드 기능까지 통합해 XM3 등 '이치 커넥트' 기술을 갖춘 차를 소유한 고객은 원격제어, 원격 정보 확인, 내 차 위치 찾기 등의 기능까지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창욱 기자 woogi@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대한민국정부



서른에게 힘이 되는
‘희망한날’

어느 때보다도 힘들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내일,
 신한카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힘내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신한카드 바로 서비스**



신한카드 바로!

모든 신한카드로 신청하고, 확정 통보 후 바로 사용
 이용 내역/잔액도 바로 확인

카드 서비스는 그대로,
 카드 신용한도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



신청기간 / 신청채널

5.11 ~ 5.31
 신한카드·신한금융그룹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한PayFAN, 솔SOL 앱 등)

5.18 ~ 종료일 미정
 신한은행 영업점



사용 확인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차감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계좌인출 없이 사용 가능

신청 문의 및 안내 ARS
 1522-7777

**긴급재난지원금
 상세 안내**



※ 자세한 사용방법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200511-Cpn-001 호(2020.05.11~2021.05.10)

KT, 1분기 통신·콘텐츠 '방긋'... IPTV 매출 12%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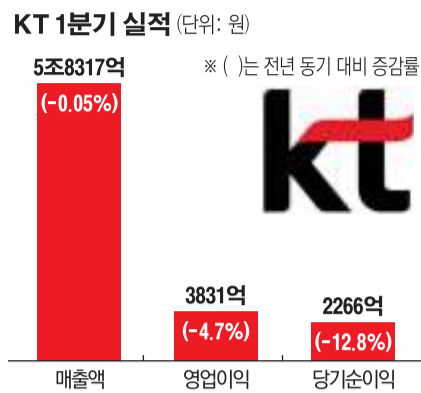
매출 5조8317억...영업의 4.7% 줄어든 3831억
무선사업 매출 1.9% 증가... B2B도 8.2% 늘어
코로나發 경기침체에 카드 7.7%·부동산 8.4% ↓

KT가 1분기 시장 추정치를 웃도는 실적으로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과 부동산 자회사가 부진했지만, 주요 사업 부문인 통신과 콘텐츠 부문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수익성이 높은 5G 가입자 비율은 올해 2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KT는 13일 1분기 연결기준 매출 5조 8317억 원, 영업이익 383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영업이익은 4.7% 감소했다. 1분기 시장 추정 영업이익은 3574억 원이었지만, 이보다 257억 원 더 벌어들였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예상과 지난해부터 계속된 5G 설비 투자를 감안한 전망치였다.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주요 사업인 통신 부문에선 선방했다. 로밍과 단말 수익이 줄면서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과 비슷하지만, 우량 가입자 확대로 무선과 미디어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AI·DX 등 B2B 사업이 성장해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상승했다. 무선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조7357억 원이다. 무선서비스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로밍 이용이 크게 줄었으나, 5G 가입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한 1조6324억 원이다. 무선 서비스 매출은 선택적정 할



인율이 25%로 확대된 2017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번 분기에 MNO 가입자는 18만1000명 순증했고, 휴대전화 가입자 순증은 6만 6000명으로 2017년 1분기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다. 1분기 5G 누적 가입자는 178만 명이다.

유선전화 매출은 37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지만, 시장 추세로 예

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초고속 인터넷 매출은 50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하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가입자당 평균 매출 (ARPU·아르푸)이 높은 기가인터넷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62%를 넘었다.

IPTV 매출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9% 성장한 4177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 IPTV 전체 가입자는 84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즌(Seezn)'은 출시 4개월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224만 명을 돌파했다.

B2B 매출도 전년 대비 8.2% 증가한 6748억 원이다. 통신 부문에서의 활약에도 금융과 부동산 실적은 부진했다.

BC카드는 국내 가맹점수수료 인하 영향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로 매입액이 축소돼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7%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에스테이트 부동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다.

윤경근 KT 재무실장(CFO)은 이날 열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코로나19 영향이 있지만, 무선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하반기 단말기와 서비스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가입자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올해 말 5G 가입자 비율 25~30% 전망했지만, 30% 달성은 힘들며 25%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수익 체고 전략에 대해선 "서비스 위주 경쟁으로 집행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배당정책에 대한 질문에 "현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중기 배당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조만간 결정될 것이며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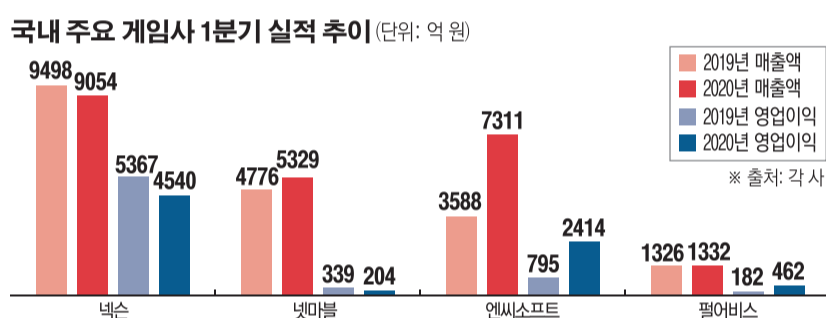
코로나 비껴간 게임업계... 1분기 실적 '선방'

국내 주요 게임업계가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선방했다. 산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게임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13일 넥슨은 영업이익 454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으며 매출액은 9045억 원으로 11% 줄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국내 실적은 메이플스토리, 피파온라인4, 서든어택 등이 호실적을 기록하며 늘었지만 중국에서의 매출이 줄어들며 하락세를 겪었다. 넥슨의 해외 매출 비중은 지난해 76%에서 올해 50.1%로 감소했다.

넷마블은 1분기 매출 5329억 원, 영업이익 204억 원의 성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11.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0%가량 하락한 수치다. 특히 북미와 일본 등의 시장에서 출시한 게임들이 인기를 끌며 2개 분기 연속 해외 매출 비중 70%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펄어비스는 1분기 영업이익 462억 원, 매출액 1332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영업이익은 15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은사막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돼 자체 서비스로 전환해 수



펄어비스, 영업이익 154% ↑
엔씨, 역대 최대 분기 매출
위메이드, 흑자전환 성공
넥슨·넷마블도 선방 평가

수료 지출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검은사막 시리즈는 PC와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성과를 거두며 수익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12일 실적발표를 통해 매출액 7311억 원, 영업이익 2414억 원을 기록하며 1분기 역대 최대 매출 성적을 공개했다. 리니지2M과 리니지M의 국내 서비스를 중심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해 연매출 2조 클럽 가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외에도 위메이드 역시 영업이익 32억 원을 달성하며 흑자로 전환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위메이드는 중국 업체와 IP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해 배상금 수령 등이 더해지며 흑자전환했다.

업계에서는 게임업계의 전체적 실적 선방이 코로나19 여파로 실내 활동이 늘면서 게임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신작 개발과 출시, 소비, 마케팅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비대면 효과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PC방 거리두기로 인해 PC온라인 게임은 하락세를 겪었지만 모바일 게임이 이를 뛰어넘으며 손실을 상쇄했다는 평가다.

2달가량 이어진 재택근무도 큰 영향이 없었다는 평가다. 게임업계는 2월 말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한 이후부터 순환·재택근무 등 출근 정책을 변경했다. 온라인을 통한 회의와 재택근무로 개발을 진행해 출시 일정에는 차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재훈 기자 yes@

중기부, OECD와 中企정책 공동 연구

연구기간 최소 16~18개월
4억원 규모 예산 편성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중소기업 정책 연구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도 편성할 계획이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 중기부는 OECD와 중소기업 정책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6월 예산심의절차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 예산 규모는 4억 원가량이며 연구 기간은 최소 16개월에서 18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연구 주제에 관해서는 거시적인 부분만 확정된 상태로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중소기업 정책을 OECD와 공동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OECD 회원국의 중소기업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공할 수도 있다. 본격적인 연구 시작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다만 6월 예산심의절차에 중기부가 이를 반영한다고 해도 기획재정부(기재부)

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될지, 또 이후 국회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정 예산이 워낙 컸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예산 반영은 지난해 11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본부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이니셔티브(D4SME)'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작됐다. D4SME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올해 발족했다. 당시 박 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 주재자로 참여했다.

박 장관의 출장 이후 중기부는 OECD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정책 리뷰'를 추진하는데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 3박 5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

OECD 측에서 먼저 공동 연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인력 3명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 1명으로 총 4명이 OECD 측 담당자 4명과 미팅을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SKC, 14호 '자상한 기업' 선정

스타트업·중소 연구개발 지원

SK그룹 계열사 SKC가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설계자산(IP)을 제공받는 대신 자사 오픈 플랫폼을 통해 혁신역량을 공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3일 서울역삼동 팁스타운에서 SKC를 14호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으로 선정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기술보증기금(기보)과 '공정 기술거래와 개방형 혁신으로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스타트업·중소기업은 IP를 SKC에 제공하고 SKC는 연구개발(R&D), 경영혁신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기술 확보 등이 필요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공정한 계약을 맺고 맡길 중개 기반이 부족했다.

이에 기보가 구축한 대·중소기업 간 기술거래시스템인 '2원-브릿지 시스템'에



정윤모(왼쪽부터)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 이원재 SKC(주) 사장, 안성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업무 협약을 들어보고 있다. 사진제공 중기부

SKC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SKC가 비밀유지 협약하에 수요 기술을 기보에 제공하면 기보는 10만여 개 중소기업 기술을 탐색해 매칭되는 기술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신탁받은 뒤 SKC와의 기술거래를 소개한다.

1250개의 회원사를 가진 코스포도 SKC의 오픈 플랫폼에 참여해 소재 분야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서울 상암에 아시아 최대 'K-실감스튜디오' 오픈

330㎡ 규모... 4K 카메라 60대·GPU 렌더팜 300대 설치
교육·의료·엔터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작·활용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상암동 한국 VR·AR콤플렉스(KoVAC)에 아시아 최대수준의 실감콘텐츠 제작인프라인 'K-실감스튜디오'를 13일 개소했다.

과기정통부는 5G 환경에서 360° 입체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인텔스튜디오와 같은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K-실감스튜디오'를 구축했다.

5G 상용화로 기존의 2차원 콘텐츠뿐만 아니라 실물처럼 입체감이 있는 실사 기반

의 3차원 대용량 실감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등 실감콘텐츠 서비스 환경이 고도화되고 있다. 'K-실감스튜디오'는 개별적으로 제작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국내 중소·벤처 실감콘텐츠기업이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실감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다.

총 330㎡(약 100평) 규모의 스튜디오에서 4K 고화질 카메라 60대로 객체(인물 등)를 모든 방향에서 촬영하고, 각각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300대의 GPU 렌더팜을 통해 빠르게 병합 처리해 하나의

완벽한 입체콘텐츠로 구현하게 된다.

국내 중소·벤처 실감콘텐츠 기업은 'K-실감스튜디오'를 활용해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고품질 입체 실감콘텐츠를 빠른 시간에 제작, AR(증강현실) 콘텐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이통3사, EBS 간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도 진행됐다. MOU 체결을 계기로 실감콘텐츠 중소·벤처기업이 정부 인프라를 활용해 실감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고, 서비스기업 플랫폼을 통해 실감콘텐츠 서비스 유통이 확대되는 등 실감콘텐츠산업의 민관협력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훈 기자 yes@

‘슈퍼콘 vs 월드콘’... 빙과 라이벌, 달아오른 ‘킹 콘’ 경쟁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빙그레가 야심작 ‘슈퍼콘’과 함께 올해 초 해태 아이스크림 인수를 통해 보유하게 된 ‘부라보콘’을 내세워 롯데제과 ‘월드콘’이 20여 년째 차지하고 있는 콘 아이스크림 시장 왕좌에 도전하고 있어서다.

월드콘은 지난해 75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린 국내 콘 아이스크림 1위 브랜드다. 지난해 슈퍼콘 매출은 180억 원에 그치고 올해 예상 매출액은 200억 원 웃도는 수준으로 잡았다. 여기에 부라보콘의 매출액이 평년 기준 400억 원대 중반임을 고려하면 올해 롯데제과(월드콘)와 빙그레(슈퍼콘·부라보콘)의 콘 제품 매출 차이는 1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여름 마케팅 성패에 따라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메로나·투게더’ 등을 보유한 빙과 명가 빙그레가 슈퍼콘에 공을 들인 이유는 콘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눈에 띄는 제품이 없다는 평가 때문이다. 1위 제품인 롯데제과 월드콘에 이어 해태의 부라보콘, 롯데푸드



빙그레 ‘슈퍼콘 + 부라보콘’ 연합 판도 뒤집기
유산슬 기용 빅 모델 마케팅·이벤트 총력
콘 아이스크림 부동의 선두 롯데 ‘월드콘’
LoL 프로게이머 ‘페이커’ 콜라버 맞붙



의 구구콘 등이 충성고객 확보에 성공했으나, 빙그레 제품인 슈팅스타 등은 존재감이 없는 편이었다.

이에 빙그레는 올해 여름 성수기 공략을 위해 슈퍼콘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부라보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등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절차가 진행 중으로 본격적인 마케팅 실시에 아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슈퍼콘’은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콘 시장 공략을 위해 2018년 선보인 야심작이다. 4년의 연구개발 기간과 1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될 정도로 공을 들였다. 빙그레에서 최근 단행한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힐 정도다. 빙그레는 기존 아이스크림

콘에 쓰이던 설탕 양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 바삭한 식감을 높였고, 과자 비중도 기존 20~30%에서 10% 이하로 줄여 제품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빙그레는 슈퍼콘 광고 모델로 지난해 손흥민에 이어 올해 3월 유산슬(유재석)을 기용하는 등 ‘빅 모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유산슬을 모델로 한 이번 광고에서 빙그레는 ‘국민콘, 슈퍼콘’이라는 슬로건으로 트로트 풍 CM송을 선보였다.

또한 빙그레는 새로운 CM 송 홍보를 위해 지난해 시행했던 ‘슈퍼콘 댄스 챌린지’에 이어 ‘슈퍼콘 트로트 챌린지’를 기획했다. 빙그레는 이 챌린지에는 최근 미스터 트롯으로 인기를 끈 가수 영탁을 1번으로

섭외해 홍보 효과를 더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슈퍼콘 트로트 챌린지는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빙그레의 거센 도전에 대응해 롯데제과는 월드콘 마케팅 수단으로 ‘e스포츠’를 택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스포츠 등의 직접 관람이 줄어들며 간접 관람이 가능한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롯데제과는 지난달 ‘월드콘’의 광고모델로 리그오브레전드(LoL) 프로게이머인 ‘페이커’를 발탁해 제품 디자인에 ‘페이커’ 이미지를 적용한 한정판 제품을 선보였다. 지난달 28일에는 ‘월드콘×페이커’

콜라버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롯데제과는 ‘월드콘×페이커’ 콜라버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는 별도 제작된 ‘월드콘’ 이벤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월드콘’과 구매 영수증을 사진으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페이커’ 관련 경품과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경품이 주어진다.

월드콘 라인업도 강화했다. 롯데제과는 최근 ‘월드콘’의 새로운 맛으로 ‘월드콘 애플크림볼’을 출시했다. 상큼달콤한 사과맛의 ‘월드콘 애플크림볼’은 윗부분에 크림볼 쿠키집을 토핑해 바삭한 식감이 좋다.

한편, 떠 먹는 아이스크림의 대명사 ‘투게더’도 슈퍼콘과 함께 여름 시장을 공략할 빙그레의 히든 카드로 분석된다. 빙그레가 지난해 출시한 소용량 제품(300ml)인 ‘빙그레 미니어저’의 올해 4월까지 매출액은 14억 원을 기록해 이미 전년 매출(10억 원)을 넘어섰다. 빙그레는 200억 원 중반대에 머물러 있던 투게더 매출을 지난해 미니어저 출시로 370억 원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이마트, 코로나 악재 뚫고 ‘분기 신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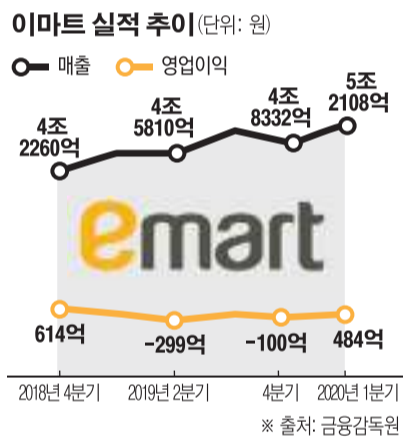
매출 5.2兆 13.6%↑... 저장성 소비·신선식품 실적 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이마트가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매장 방문으로 이마트와 트레이더스가 1분기 동안 총 30여 회 가까이 휴점했음에도 예상 밖의 성과다.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대량 소비가 늘며 창고형 할인매장이 선행했고, 온라인에서 신선식품 구매가 늘면서 SSG닷컴의 활약도 돋보였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올해 1분기 매출 5조21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올랐다. 이는 2011년 신세계그룹에서 분할 이후 분기별 최대 매출이다. 영업이익은 484억 원으로 34.9% 내렸다.

사업부별로 할인점은 총매출액 2조 7807억 원을 거둬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854억 원으로 20.0% 감소했다. 1~2월 기준점은 0.2% 매출이 늘었지만, 코로나19 타격으로 3월엔 -7.8%로 내렸다.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는 6711억 원으로 21.8% 증가한 총매출을 거뒀고, 영업익 역시 175억 원으로 22.4% 뛰었다. 일렉트로마트 등 전문점은 총매출 2871억 원으로 9.7% 올랐지만, 182억 원의 영업손실로 적자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노브랜드는 25억 원



로 분기 첫 흑자를 달성했다.

연결 자회사 실적으로는 SSG닷컴의 매출이 3069억 원으로 73.9% 뛰었지만, 인력 충원 및 카페 증설 등에 따른 고정비가 늘며 영업손실 197억 원으로 적자가 확대됐다. 편의점 이마트24는 3542억 원의 매출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25.5% 성장했지만, 80억 원의 영업손실로 적자를 이어갔다.

스타필드 사업을 하는 프라퍼티는 매출 512억 원을 거둬 9.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8억 원으로 22.2% 떨어졌다.

관계사인 신세계백화점은 1분기 실적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1% 줄어든 1조1969억 원의 매출과 97.0% 추락한 3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현대백화점 역시 매출 4496억과 영업이익

149억 원으로 각각 13.7%, 80.2% 급락하며 크게 부진했다. 아직 1분기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롯데쇼핑 역시 좋은 실적을 기대하긴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량 저장 목적 소비가 이어진 점이 실적을 방어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출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소비해야 할 식품, 특히 신선식품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의 매출 가운데 식품 비중은 60~70%에 달한다.

온라인 사업인 SSG닷컴의 눈부신 활약도 힘을 보탤다. SSG닷컴의 매출 비중은 온라인 시장 전체의 2% 내외에 불과하지만 온라인 신선식품 내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13%에 육박하는 온라인 신선식품 강자다. 온라인 식품 주문이 늘며 SSG닷컴의 1분기 매출이 73.9% 늘었다. 이는 올 초 성장률 25%와 비교할 때 고무적인 성과다.

실제 SSG닷컴은 전국 P.P(Picking & Packing)센터의 ‘쓱배송’ 처리물량을 지역별로 최대 20%까지 늘렸고, 물류창고 네오(NE.O)에서 출발하는 서울, 경기권 대상 새벽배송도 기존 대비 50% 확대했지만, 일찌감치 주문이 마감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로서리(식재료) 경쟁력 강화 등 수익 중심 사업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문화센터도 랜선으로 현대백화점이 공식 유튜브 채널 ‘현대백화점TV’를 통해 다양한 문화센터를 생중계하는 ‘랜선 문화센터’를 선보였다. 현대백화점은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랜선 문화센터’를 통해 재테크, 인문학, 트로트, 노래, 필라테스, 댄스, 요리 등 총 12개 강좌를 30분 단위로 연이어 방영했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롯데, 위기극복 ‘위닝 스피릿’ 심는다

488개 실천과제 수립... 교육 강화

롯데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위닝 스피릿(Winning Spirit)을 기업문화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롯데는 12일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에서 ‘2020년 롯데 기업문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임직원에게 위닝 스피릿을 심어주는 방안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5년째를 맞는 롯데기업문화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송용덕(사진) 롯데지주 부회장, 이경목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경영진으로 구성된 내·외부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롯데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임직원 위닝 스피릿 함양에 주목했다. 위닝 스피릿은 모든 임직원이 기업 고유의 가치관을 공감하고,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최고의 결과를 끌어내는 의지를 말한다.

1월 ‘2020 상반기 LOTTE VCM(Value Creation Meeting)’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은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닝 컬처(Winning Culture)가 조직 내에 자리 잡아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롯데 기업문화위원회는 기업 내 위닝 스피릿 확산을 위해 3월 16일부터 롯데 임직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 진단을 진행해 구성원의 자발적 성과창출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각 계열사 상황에 맞춰 임직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인 ‘위닝 톨’을 제정하고, ‘위닝 코칭 평가 항목 도입’, ‘프로젝트 단위 크로스셀 조직 운영’, ‘Small Success 보상 체계 구축’ 등 실천 과제 488개를 수립해 계열사별로 진행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들은 위닝 스피릿 필요성에 공감하고, 롯데가 처한 상황에 냉철한 진단과 함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했다.

롯데는 외부 위원들의 조언을 반영해 위닝 스피릿이 기업문화로 회사에 완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 임직원 내재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송용덕 부회장은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려는 의지를 담은 위닝 스피릿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칠성사이다, 70년 만에 새로운 맛

롯데칠성음료가 칠성사이다 출시 7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맛의 신제품 칠성사이다 ‘복숭아’ 및 ‘청귤’ 500ml 페트병(사진)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칠성사이다 복숭아 및 청귤은 1950년에 선보인 칠성사이다 70주년을 기념하고, 국내 대표 탄산음료 칠성사이다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반영해 선보이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칠성사이다의 맑고 깨끗함에 짜릿한 탄산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내산 과일

풍미를 더한 색다른 맛을 선보이기 위해 다양한 과일로 소비자 조사를 거듭한 끝에 복숭아와 청귤을 선택했다.

RTD 탄산음료 최초로 익지 않은 제주산 청귤 과즙을 사용한 칠성사이다 청귤은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을 사용해 제품 속성은 유지하면서 더욱 상큼한 맛을 살렸다. 칠성사이다 복숭아는 달콤한 맛으로 남



녀노소 누구나 선호하는 복숭아를 활용한 제품으로 국내산 복숭아 과즙을 넣어 색다른 칠성사이다를 맛볼 수 있다.

관계자는 “짜릿함은 그대로, 국내산 과즙을 넣어 70년 만에 선보이는 칠성사이다 신제품은 새로운 사이드의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제품 출시와 함께 새로운 광고 모델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내실 다진 제약 '빅4'... 2분기 성장은 계속된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램시마SC 세 확장에 '견고한 성장' 유한양행 레이저티닙·GC녹십자 백신수출 효과 실적개선 한미약품, 만성질환 제품 중심 매출↑ 전망... 영업익은 줄 듯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외형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실을 다진 제약사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위 4대 제약사(빅4)의 올해 2분기 매출액 추정치(컨센서스)가 지난해 2분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우려 속에도 1분기 실적 선방에 대체로 성공한 빅4가 2분기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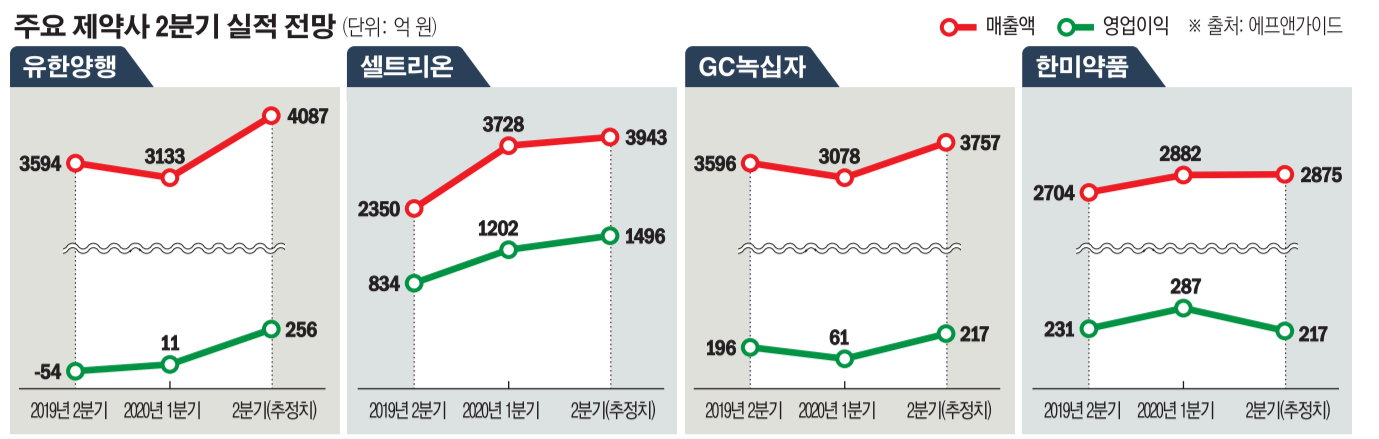
지난해 2분기에 비해 매출액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곳은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의 2분기 매출액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67.8% 늘어난 3943억 원이다. 1분기 매출액 3728억 원을 기록한 셀트리온은 상반기에만 80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액을 올려 지난해 가입한 '1조 클럽'의 입지를 단단히 다질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된다. 셀트리온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지난해보다 79.4% 늘어난 14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셀트리온은 주력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해마다 몸집을 불리고 있다. '램시마'와 '트룩시마'는 미국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3월에는 유방암·위암 치료제 '허주마'도 미국에 출시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3종의 미국 시장 규모는 총 16조 원에 달한다.

특히 셀트리온의 올해 주력 제품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파하주사제형 바이오의약품 '램시마SC' (성분명 인플릭시맵)는 독일과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까지 유럽 각국에 차례로 출시되고 있다. 램시마SC는 정맥주사(IV) 제형인 램시마와 치료에 함께 활용될 수 있는 듀얼 포뮬레이션 효과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로 1분기 실적이 뒷걸음질쳤던 유한양행은 2분기에 이를 가뿐히 만회한다. 2분기 매출액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한 4087억 원이다. 영업이익은 256억 원으로 흑자전환할 전망이다.

종합병원 비중이 높은 유한양행은 코로나19로 내원환자가 줄면서 1분기 주요 사



업 부문인 전문의약품(ETC)의 매출이 감소했다. 2분기에는 400억~500억 원대 신규 상품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매출 반등에 나선다. 개량 신약도 출시할 계획에 따라 ETC 실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은 안색에 기술 수출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3500만 달러(약 432억 원)의 70%가량이 인식되면서 크게 개선된다. 유한양행은 이달 말부터 열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레이저티닙의 임상 2상 결과를 공개한다.

GC녹십자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3757억 원, 영업이익 2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각각 4.5%, 10.3% 증가한 규모다.

1분기 GC녹십자는 주력 품목인 수두백

신과 독감백신의 수출이 대폭 늘면서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수두백신은 1분기에만 122억 원 수출돼 이미 지난해 수출액의 85%를 달성했다. 수익성도 개선됐지만, 지급수수료와 광고선전비 증가로 기대치는 하회했다.

2분기에는 마진이 높은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가 본격적으로 수출되고, 독감백신 매출이 크게 늘면서 호실적이 예상된다. 헌터라제는 상반기 내 중국 품목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자체 개발 제품이 실적을 견인하는 한미약품의 2분기 매출액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한 2875억 원이다. 다만 영업이익은 빅4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약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

국 북경한미의 타격에도 우려보다 양호한 1분기 실적을 올렸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 제품이 뒷받침한 덕분이다.

2분기부터는 연구·개발(R&D) 성과가 두드러진다. 경구용 항암신약 '오락솔'은 2분기 NDA 신청을 앞두고 있고, 6월 미국 당뇨병학회(ADA)에서 '캡스 트리플 아고니스트'의 임상 1b상 결과를 발표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사업 다각화와 R&D 성과 등으로 코로나19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추가적인 성장이 제한되는 점은 아쉽지만 국내 제약사들의 기초체력이 탄탄하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리딩기업 입지 굳힐 것”

바이오 쥘민

지놈앤컴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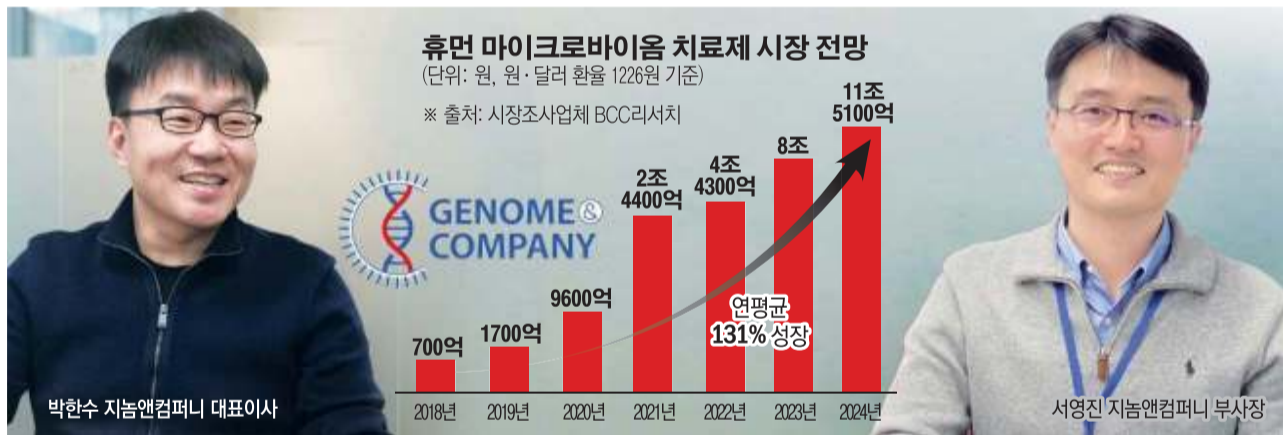
지놈앤컴퍼니(배지수·박한수대표)가 창업 5년 만에 마이크로바이옴(인체와 공생하는 미생물 유전정보) 혁신 신약개발 선도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놈앤컴퍼니의 면역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GEN-001)는 지난해 독일의 머크·화이자, 국내 LG화학 등 대형 제약사들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이라는 국내 최초 사례를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총 550여 억원(기관·개인)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으며, 창업 3년 만에 입성한 코넥스 시장에서 연내 코스닥 이전상장을 목표로 속도를 내며 성장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11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지놈앤컴퍼니 본사에서 만난 박한수 대표와 서영진 부사장(최고운영책임자)은 급속한 회사 성장의 원동력으로 '과감한 도전', '유연한 의사결정', '조화로운 인재풀'을 꼽았다.

박 대표는 "경쟁사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방향성을 광범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다국적 제약사들과 접촉하며 마이크로바이옴 항암 시장에 도전했으며, 증권당 출신 박경미 부사장 등 분야별 역량있는 구성원을 영입해 유연한 의사결



'GEN-001' 선제적 연구 결실 다국적 제약사 러브콜 잇달아 CDMO 등 중장기 신사업도

정으로 어려운 고비들을 넘었다"며 "국내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기업도 해내지 못한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연구, 국내 대기업과의 기술이전 등의 결과가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자평했다.

현재 지놈앤컴퍼니의 GEN-001과 머크·화이자와 바벤시오(PD-L1억제제)의 병용임상시험 공동연구는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고 하반기 중 첫 환자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상 2상 초기에 해당되는 초기 효능까지 검증, 2022

년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LG화학이 GEN-001의 기술이전 계약 건에선 초기 임상 개발을 지놈앤컴퍼니가, LG화학이 후기 임상과 동아시아 지역 상업화를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장기적 수익이 될 수 있는 의약품 핵심 개발 사업 강화를 위해 올해 초 통합 연구소를 '마이크로바이옴연구소'와 '신약연구소'로 조직을 개편했다.

더불어 사업개발부 강화를 통해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할 CDMO(위탁생산·개발)·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중장기적 사업도 전개 중이다.

서 부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생산기술 수준은 초기 단계로 작년에 배양 공정 연구를 집중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공정 연구팀'을 구축해 인적 자원과 생산 공정 플랫폼을

완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생산 공장을 구축해 향후 CDMO 사업 모델까지 구상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만성질환, 피부, 뇌질환, 난임 등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다양한 균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발빠른 실행력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개발 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과 주요 질병들과 상관관계가 밝혀지며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시장조사 업체 BCC리서치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8년 700억 원에서 2024년 11조 원으로 연평균 131%씩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GC녹십자웰빙 '라이넥' 코로나 항바이러스 효과

GC녹십자웰빙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인태만기수분해물 '라이넥'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를 연구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태만기수분해물은 사람의 태반에서 추출한 물질이다. 항산화 작용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TNF- α , COX-2) 발현 억제 작용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GC녹십자웰빙의 라이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은 유일한 제품이다.

이번 연구는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진이 아프리카 녹색원숭이 신장세포인 '베로(Vero)' 세포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결과, 라이넥 원액 및 50% 농도를 처치한 두 실험군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였다.

동물실험은 인체와 호흡기 구조가 가장 유사한 페렛(족제비) 모델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 라이넥을 정맥주사로 회당 4ml씩 2일 간격으로 총 4회 투여한 실험군에서 감염 4일 차부터 발열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감염 6일째부터는 페렛의 비강 세척액에서 바이러스 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한혜정 GC녹십자웰빙 상무는 "라이넥은 바이러스 감염 시 나타나는 다양한 세포의 염증성 손상에 대한 항염증 작용과 통증억제, 면역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체내 항바이러스 작용까지 입증될 경우 다중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라이넥은 알코올성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환자에 대한 '간기능 개선제'로, 누적 판매량 5000만 도즈에 달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러시아에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치료에 정맥주사 용법이 사용되는 등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다. 유혜은 기자 euna@

제넥신, 면역항암제 병용임상 중간 발표

'하이루킨-7' 유방암 항종양 결과

제넥신은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하이루킨-7과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투르다 병용 임상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진행성 또는 재발성 삼중음성유방암(TNBC) 환자에게 하이루킨-7과 키투르다를 병용 투여한 임상1b/2상 시험이다.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는 다른 유형의 유

방암 환자보다 질병 진행이 빠르며 전체 생존기간도 짧은 편으로, 1차 이상 항암 치료에 실패한 재발 환자에서 면역관문억제제의 치료율은 약 5.3%이다. 2월에 제출해 선정된 초록에는 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저·중용량의 하이루킨-7 병용투여 임상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5월 말 실제 발표는 매우 고무적인 치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고용량의 하이루킨-7 병용 투여군도 포

함한 총 30명의 전이 및 재발 환자에서 얻은 하이루킨-7의 용량에 따른 항종양 효과가 포스터로 발표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범부처신약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네오이문텍과 공동 개발 중이다.

한편 이번 ASCO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Virtual Conference)으로 진행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유혜은 기자 euna@

‘1분기 호실적’ 상장사, 자회사 덕 봤다

카카오 ‘카뱅’ 순익 185억·‘픽코마’ 급성장에 ‘사상 최대 실적’ 현대그린푸드, 현대리바트 영업익 50% ↑ ... 시장 추정치 웃돌아 종근당, 코로나에 종근당건강 성장세 지속... 영업익 253억 추정

코로나19 여파에도 우량 자회사를 둔 기업들이 견조한 실적을 내며 주목받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상외 호실적을 기록한 상장사 상당수가 자회사 덕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일 최고가를 쓰고 있는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고 영업이익은 219% 급증했다. 본업인 카카오톡의 성장세와 함께 자회사들의 선전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립 3년여 만인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카카오펍크는 올 1분기 순이익 185억 원을 기록, 1200만 고객을 바탕으로 본격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 카카오의 일본 자회사 카카오페이 운영사는 웹툰 ‘픽코마’는 매년 2배씩 급성장하고 있다.

김창권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톡모빌리티 등의 IPO 이벤트가 있을 전망”이라며 “실적 개선 흐름과 함께 자회사 IPO 모멘텀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린푸드 역시 코로나19 여파에도 시장 추정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다. 코로나19로 현대그린푸드의 급식·외식·식자재 유통 사업의 실적은 부진했지만 자회사 현대리바트가 실적 호조를 견인했다. 현대리바트는 1분기 연결기준 영

업이익 148억 원을 내며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했다. 매출도 369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7% 늘었다.

종근당홀딩스도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자회사 종근당건강의 덕을 봤다. 종근당건강은 지난해 유산균(락토픽) 매출액 성장률이 124%를 기록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산균과 함께 기타제품군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종근당홀딩스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4.6% 증가한 253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SK머티리얼즈도 주력 제품인 NF3(삼불화질소)의 매출 부진에도 낸드 주요 호조에 반도체용 특수가스 매출이 증가하면서 SK트리켄(전구체), SK소와

덴코(식각가스) 등 자회사들이 실적 호조를 보여 시장 추정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대형건설사인 대림산업도 자회사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올 1분기 호실적은 건설사업 부분의 원가 개선과 연결 자회사인 삼호의 실적, 고려개발의 연결 편입 효과 등이 매출 및 영업이익의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회사 고려개발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5.2%, 3.8% 늘었고 삼호 역시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미국임상암학회〉

암 정복 나선 제약사... ASCO 임상 발표 ‘주목’

에이치엘비·유한양행·한미약품 등 항암치료 최신 동향 ‘초록’에 채택 R&D 모멘텀 확보 추가 큰폭 상승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임상암학회(ASCO) 연례학술대회 개최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암 정복에 나선 국내 상장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할 경우 추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어서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ASCO는 14일 오전 6시(한국 시간) 이번 학술대회에서 채택한 초록(Abstract)을 공개했다.

이번 초록 공개를 통해 투자자는 학술대회 참여기업의 확인할 수 있다. 또 초록이

미국 임상암학회(ASCO) 연례학술대회 참여 국내 상장사 현황

에이치엘비	리보세라닙(중국어 ‘아파티닙’) 선양낭성암 임상 연구 및 간세포암·자궁경부암·육종암 임상 결과
유한양행	레이저티닙 국내 임상 2상 결과
한미약품	오락솔 혈관육종암 2상 결과 및 포지오티닙 임상 결과
알테오젠	ALT P7 1상 임상 결과
GC녹십자	GC118 임상 1b/2a상 중간 결과
제넥신	하이루킨·키트루다 병용 임상 1b/2a상 중간 결과

※ 출처: 각 사

긍정적인 내용일 경우 해당 기업 주가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ASCO는 매년 약 4만여 명의 암 전문의들이 참석해, 항암치료 분야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세계적인 학술대회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현재 초록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은 에이치엘비, 유한양행, 한미약품, 알테오젠, GC녹십자, 제넥신, 신라젠, 지트리비엔티, 메드팩토, 엔케이맥스, 파맵신, 셀리드 등이다.

에이치엘비는 미국법인인 엘레바가 제출한 초록 1건과 ‘리보세라닙’(중국어 ‘아파티닙’)의 중국 임상 결과 관련 초록 3건이 채택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엘레바가 제출한 초록은 리보세라닙의 선양낭성암(ACC) 치료를 위한 임상 진행과 관련한 내용”이라며 “중국 관련해서는 간세포암, 자궁경부암, 육

종암 관련한 임상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이 다국적 제약사 안센에 수출한 폐암치료 신약 ‘레이저티닙’도 국내 임상 2상 결과가 공개된다. 긍정적인 내용일 경우 3상 진입을 통해 대규모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수취할 수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

한미약품은 기술수출 파트너를 통해 다수의 신약 임상데이터를 공개한다. 아테넥스는 한미약품의 오라스커버리 플랫폼 기술이 접목된 ‘오락솔’의 2상 임상데이터를 발표한다. 스펙트럼은 폐암신약 ‘포지오티닙’ 임상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제넥신은 삼중음성유방암 대상 ‘하이루킨-7’과 ‘키트루다’의 병용투여 1/

2상 결과를 공개한다. 알테오젠은 항체약물접합(ADC) 유방암 치료제 ‘ALT-P7’의 최초 임상투여(first-in-human) 결과가 초록으로 채택됐다. 메드팩토도 TGF-β억제제 ‘백토서탑’과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병용투여한 1상 임상 데이터를 공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반사이익에 항암제 관련 연구개발(R&D)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제약·바이오 업종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의약품지수는 현재 저점 대비 41% 상승해 폭락 전 수준을 이미 넘었으며 이것은 코스닥 제약지수도 마찬가지”라며 “미국암연구학회(AACR)나 ASCO와 같은 학회 등으로 R&D 모멘텀을 확보한 기업들은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여말민당)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매출 65% 해외사... 팬데믹 '직격탄'

큐브엔터, 141억 유증 추진

상장사 재무 분석

서연이화

현대기아차의 1차 벤더인 서연이화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다. 매출의 65%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면서 실적과 재무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 향후 신용등급 강등의 위기 상황도 우려된다.

서연이화는 2014년 7월 한일이화에서 분할 설립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이다. 차량용 도어트림, 시트 및 범퍼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에 생산품의 80% 이상을 납품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량에 실적이 연동되는 상황이다.

서연이화는 올해 들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 여파의 중반기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출의 65%가량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실적 저하가 예상되고 있다.

서연이화 연결기준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억 원, %)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	20,075	18,508	19,768
영업이익	-122	120	219
순차입금	1,461	3,308	4,386
부채비율	162.4	154.5	192.9
차입금의존도	28.9	30.6	33.5

현대차 판매 부진 영향 매출 정체 차입금 4386억, 부채비율 193%

코로나 사태 재무 추가 악화 예고

작년 매출 중 35%가 국내에서 발생했고, 유럽 17.4%, 인도 15.2%, 미국 13.4%, 중국 9.2%, 멕시코 5.5%, 브라질은 4.4%였다.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유럽과 인도, 미국, 중국 모두 코로나19로 충격을 치렀거나 확산일로에 있는 지역들이다.

여기에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과 그로 인한 수익성 저하, 재무 안정성 훼손까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서연이화는 연간 1000억 원 안팎의 EBITDA(법인세,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가 발생했지만

200억 원 내외의 금융비용과 현금 소요를 고려하면 잉여현금 창출이 어려운 상태다.

게다가 인도와 미국, 중국 등에서 영업현금을 웃도는 자본적 지출이 계속되고 있어 이것 역시 재무 안정성에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이러한 투자 활동으로 회사에서 빠져나간 현금만 7300억 원이 넘는다. 또 현금이 돌지 않으면서 외부 차입 의존도 역시 커지고 있다. 순차입금은 2017년 1461억 원에서 2018년 3308억 원, 2019년 438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에 따라 162.4%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192.9%로 뛰었다.

나이스신용평가 최경희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국제적으로 확산한 2분기 이후 실적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6개월간 사태 지속 가정 시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14% 내외의 하락을, 영업이익은 300억 원 내외의 적자를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 "과중한 규모의 투자로 차입금 증가가 지속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재무안정성이 추가로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2년 연속 흑자에 결손금 줄어 운영자금 목적 자금조달 나서

큐브엔터가 2년 연속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결손금을 줄이고 있다. 최근엔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자금 조달에도 한창인 모습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큐브엔터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57억 원과 52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총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이로 인해 2014년 41억 원이던 이익잉여금은 이듬해 18억 원의 결손금으로 전환했고, 규모는 2016년 68억 원, 2017년 78억 원으로 점점 커졌다.

결손금은 회사의 총자본을 갉아먹기 때문에 재무지표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큐브엔터의 경우 2015년 상장을 하면서 총자본이 67억 원에서 209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이후 불어나는 결손금으로 인해 2017년 158억 원으로까지 감소했다.

이러던 가운데 2018년 11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고, 지난해 마

큐브엔터 재무손익 추이

(단위: 억 원)

	2017년	2018년	2019년
당기순이익	-9.8	11	9.9
결손금	-78	-69	-60
자본총액	158	167	176

* 출처: 금융원 전자공시

찬가지로 10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에 2017년 78억 원이던 결손금은 이듬해 69억 원, 지난해 60억 원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총자본은 158억 원에서 176억 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최근 141억 원 규모의 3차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재무 상황이나 지분 취득유이 아닌, 운영자금 조달이 목적인 만큼 이번 증자는 향후 회사의 자본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큐브엔터는 2006년 설립돼 현재 음반제작과 연예인 매니지먼트,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소속 연예인으로는 2AM, 비투비, (여자)아이들, 이휘재, 이상준 등이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세하, 매각 확정 후 900억 대출 배경은

최대주주 한국제지로 바뀌어 유암코 보유·보증 채권 상황

세하가 최대주주 변경과 함께 900억 원 규모 리파이낸싱을 실시한다. 한국제지를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이하면서 기존 유암코가 보유하거나 보증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제지는 이달 중으로 세하가 KB증권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한 900억 원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했다. 채무보증금액은 117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세하 자기 자본 379억 원 대비 237% 수준이다.

차입금은 세하가 현재 최대주주인 유암코에 빌린 차입금 428억 원과 회사채 75억 원을 상환하는 데 쓰인다. 아울러 유암코가 채무 보증을 서고 한국투자증권이 대출해준 400억 원도 상환한다.

이는 유암코가 세하 지분 71.6%를 한국제지에 550억 원을 받고 매각하면서 자사가 보유한 채권도 함께 매각한 데 따른 것이다. 매각 채권의 경우 리파이낸싱을 통한 대금 지급을 허용했다.

다만 딜 클로징은 다소 밀릴 가능성도 있다. 잔금 지급 기한이 임시주총 3일 전

까지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들은 현재까지 납입 완료는 발표하지 않았다. 협의가 있을 경우 다음날(1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임시주총회 전까지로 납입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막판 납입도 가능하다. 한국제지 측은 해당 임시주총서 자사 인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이번 매각으로 세하의 금융비용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리파이낸싱 대상 채권은 총 900억 원 규모로 연 이자율은 4.6% 수준이다. 이를 상환하기 위해 KB증권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중 400억 원이 브리저론으로, 단기활용 목적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향후 자금 구조 변동도 관심사다. 세하가 KB증권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일반 대출 500억 원 1년, 브리저론 400억 원 6개월로 짧다. 이 기간에 다시 한번 리파이낸싱이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에도 한국제지가 보증을 선 만큼, 채무이행 관련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크지 않다.

세하 관계자는 "KB증권 대출의 경우 잔금 납입과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잔금 납입일과 대출일이 같다"며 "아직까지 대출이 실행되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기자 pgy@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5월호 발매

COVER STORY 바이러스의 진실

- PART1. 코로나19로 붉은 불에 드리고 싶은 말
- PART2. 바이러스를 둘러싼 19가지 궁금증
- PART3. 두 얼굴의 바이러스, 현명하게 마주하기
- PART4. 바이러스 퇴치, 면역력이 답이다
- PART5. 허구가 만들어진 '제2의 바이러스'



선과보가 만난 사랑



높은 소년 가수 이광조의 자유로운 영혼처럼



우리 노래의 길을 잇는 국악인 김명임 대한민국 단 해수의 소리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



주말마다 삶과 스토리를 새겨 놓다 해외에서 더 빛나는 보석 디자이너 김정희



더불어 숲 증언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

시집 '목호를 읽고' 막걸리를 안 마실 수 없다는 산배의 SNS 글을 보고, 기억 속 목호를 떠올렸다. 목호를 따라와서 비좁고 가파른 골짜기에서 마주했던 김부은 바다, 슬레이트집 담배로 그려진 소박한 벽화들. 목호를 따라갈 만치에서 청문으로 감상했던 목호의 밤 풍경들. 유난히 목호에 끌리는 건, 약일까, 좋은 건 이유가 없다더니 목호가 그렇다.

고수열전 삶을 통해 긍정 못할 게 없다

종교를 뛰어넘는 곳에 예술이 있을 것이다. 예술이란 자유로운 정신의 산물이다. 그 어떤 권능에도 휘둘러거나 피라하지 않는 자율적 행위이다. 그러나 자유 혹은 자율을 근간으로 삼기가 쉽다. 때때로 스럽이 꼬이고 두렵기 증은 세계에 간하는 게 사람이다. 신의 허물을 간첩히 불러 위안을 구하고서도 돌아서면 외로워 보체는 게 사람이다. 도들이 표처럼 자주 되돌아오는 자문은 하나. 나는 누구인가?



시니어 밥상

올메이드 사활을 식+ 영양 만점 달걀로 채운 불소풍 도시락

투자 고수와 놀자

김혜련 하니은행 은화설계센터 수석연구원 노후 자산관리 '눈-게 보고, 갈-게 가라'

생생 부동산 현장 주거·상업·행정 갖춘 탄탄한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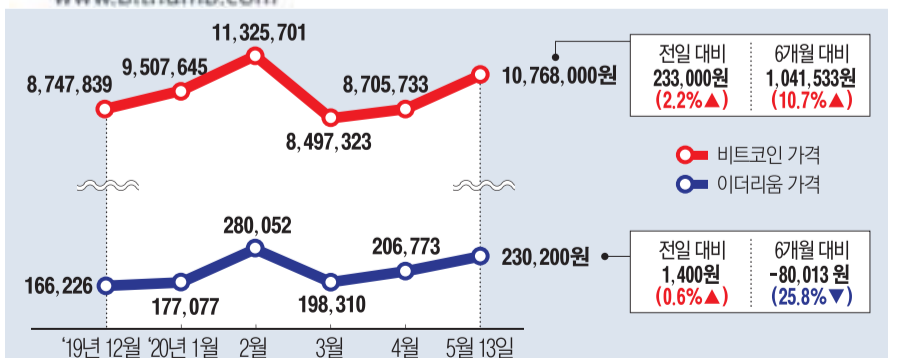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차용필드' 교통 호재를 비롯해 다양한 개발 호풍이 불고 있는 것. 다산신도시의 주택과 상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살펴봤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8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0년 5월 13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82,900	-1,800 (0.6%▼)	모네로	75,700	2,750 (3.8%▲)
리플	239	2 (0.8%▲)	비트코인골드	10,780	150 (1.4%▲)
라이트코인	51,100	100 (0.2%▲)	이더리움클래식	7,350	10 (0.1%▲)
대시	88,450	1,950 (2.3%▲)	퀀텀	1,777	30 (1.7%▲)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매물 없어요”... 재건축發 강남4구 ‘전세대란’ 오나

서초 신반포4지구 등 대규모 이주 시작, 전세 수요 크게 늘어 강화된 거주 요건에 집주인 직접 입주 많아... 계약 30% ‘뚝’ 내년 서울 입주물량 올해의 절반... 공급 부족에 가격 더 뛸 듯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세입자 김모씨(37세)는 얼마 전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실거주 요건 강화 규제 때문에 직접 입주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집주인의 말에 김씨는 근처 다른 집 전세를 구하려고 부동산에 연락했지만 전세 매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인근 재건축 단지들에서 대규모 이주가 시작된 데다 7·8월 학군 수요까지 벌써 움직이고 있어 전세 매물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이다. 김씨는 “다행히 아파트 전세를 구하더라도 그간 오른 가격 탓에 전세금 마련도 어려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강남권 아파트값은 최근 안정세를 찾았으나 전세값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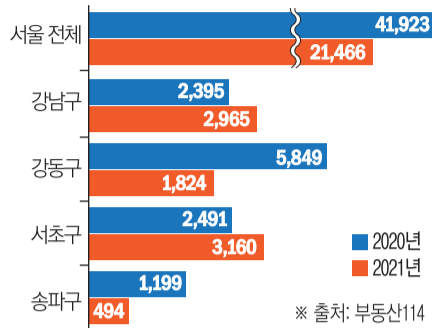
다. 대출 규제와 1주택자 실거주 요건 강화 등 규제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인근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까지 본격 발생하고 있어서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하락했다. 하지만 전세가격은 0.02% 올랐다. 이는 전주(0.01%)보다 오히려 오름폭이 커진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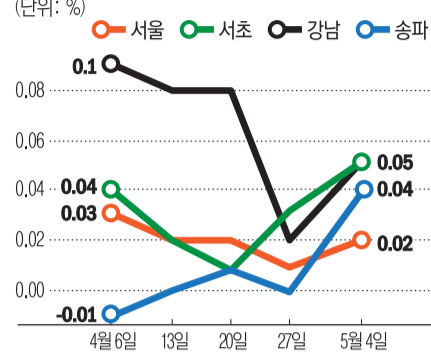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전세가격이 0.02%에서 0.04%로 올랐는데, 서초구가 0.03%에서 0.05%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남구도 지난주 0.05%로 전주(0.02%)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이처럼 강남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재건축 사업에 따라 이주를 시작한 단지들이 많아지면서 전세 수요가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연간 추이 (단위: 가구)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단위: %)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당장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가 이달 25일부터 이주를 시작한다. 신반포4 지구는 잠원 한신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빌라 등 7개 아파트와 상가 2곳을 묶어 재건축하는 단지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 이주에 나서면 무려 2898가구가 주로 인근에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단지 외에도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 아파트가 이달 말까지 이주를 완료할 예정

이며, 서초구 방배13구역(1550가구)과 방배14구역(316가구)도 이주를 앞두고 있다.

실제 인근 반포 자이 아파트 전용면적 84.94㎡형의 전세가격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13억 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4억 원대까지 올랐다. 반포미도아파트 전용 84.96㎡형도 올해 초에는 전세가격이 6억 원대였으나 이달 들어 7억 원이 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세 수요는 늘고 있으나 전세 매물이 줄면서 거래 자체도 뜸한 편이다. 1월부터

4월까지 강남3구에선 7544건의 아파트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1만952건)보다 30% 넘게 줄어든 규모다. 특히 6억 원 초과 고가 전세 거래 비중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이상 실거주가 의무화되면서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지역에서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고 앞으로 수요를 채워줄 만큼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는 4만2012가구로 지난해와 비슷한 데다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 등 정부 규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정부는 불안 조짐을 보이는 서울 전세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이달 분양

전용면적 37~84㎡ 486실... 6개 노선 지나는 다중역세권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원에서 주거형 오피스텔 위주로 구성된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3층, 3개동, 전용면적 37~84㎡, 총 486실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37㎡ 19실 △38㎡ 38실 △53㎡ 76실 △56㎡ 19실 △59㎡ 19실 △71㎡ 1실 △84㎡ 314실 등이다.

구 성바오로병원 개발 사업인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가 위치한 청량리역 일대는 서울 동북부 최고의 교통 요지로 꼽힌다. 현재 지하철 1호선·경원선·분당선·경의중앙선·경춘선·KTX강릉선 등 총 6개 노선이 지나고 있는데 특히, 단지는 청량리역 6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여기에 추가로 GTX-B(2019년 8월 예비타당성 통과), GTX-C(2018년 12월 예비타당성 통과) 노선과 더불어 지난해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강북횡단선(추진중), 면목선(추진중)이 계획돼 있다. 도로 여건도 우수하다. 왕산로, 고산자로, 천호대



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오가는 60여 개의 버스노선이 있다.

단지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약령시장, 경동시장, 청량리종합도매시장, 청량리농수산물시장 등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경희대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삼육병원, 서울성심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가깝다.

또한 반경 3km 내에 서울시립대, 고려대, 성신여대,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KAIST 등 총 7개 대학이 있어 교수, 연구원, 교직원과 학생 등의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량리 일대에는 이미 다수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청량리 종합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개발되는 것도 호재로 꼽히고 있다.

용산 정비창 개발 소식에 경매시장 ‘들쭉’

청파동 꼬마빌딩에 42명 몰려 인근 아파트도 높은 가격 낙찰

정부가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에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용산 주택 경매시장에 투자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

1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근린주택에 대한 1회 경매 입찰에 42명이 달려들었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이 주택은 대지면적 95.9㎡, 건물면적 273.4㎡의 지상 3층짜리 ‘꼬마빌딩’이다.

감정가는 9억143만1950만 원이었으나 응찰자가 대거 몰리면서 14억6000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의 1.6배 수준이다.

전날 서부지법에서 경매가 진행된 용산구 신계동 ‘용산 e편한세상’ 아파트 전용면적 124㎡(20층)도 감정가(16억6000만원)보다 비싼 16억755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태원동 남산대림아파트 전용 84㎡(감정가 12억5000만 원) 물건은 한 차례 유찰됐지만, 2회차 경매 입찰이 진행된 이촌동 월드메르디앙 전용 128㎡는 최저가(13억1200만 원)보다 소폭 높은 13억1311만 원에 팔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6일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51만㎡)에 미니 신도시급인 8000가구와 업무·상업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산 일대 부동산 투자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www.hyundapharm.co.kr

“집에서 하는 전문 헤어 클리닉”

탈모증상완화에 도움!

현대약품 연구진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미녹솔S 3종세트

현대약품의 국민탈모약 마이녹솔에 감탄한 고객님의 요청으로 탄생했습니다. 탈모증상을 완화하고 모발을 케어하는 현대약품 미녹솔S 집에서 쉽게 간편하게 탈모관리하세요.

미녹솔S 스케일러 (두피 스케일링 및 각질케어)
자연유래추출물로 두피를 상쾌하고 청결하게!
자연유래 성분 : 맥주효모추출물, 쿠마린아이드, 호두껍질, 미유오일, 베타민, 유칼립투스잎추출물

미녹솔S 샴푸 (두피영양 및 모발케어 / 탈모증상완화 기능성화장품)
탈모증상완화에 도움을 주어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기능성 성분 4종 : 바이오틴, 판테놀, 나이아신아미드, 정크리틴은
자연유래 성분 : 콜라겐, 비타민C, 유칼립투스잎추출물, 알로에추출물, 맥주효모추출물, 아성초추출물, 녹차잎추출물, 차스민추출물, 로즈마리추출물, 쿠마린아이드

스칼프 헤어토닉 (두피 및 모발영양)
집중 영양 공급으로 씻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자연유래 성분 : 맥주효모추출물, 유칼립투스잎추출물, 쿠마린아이드, 보톡추출물, 맥아추출물, 연꽃

아람비스토어 단독 특별 판매가

2세트 : ~~120,000원~~ ▶ **108,000원** / 1세트 : 60,000원 / 3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

온라인 주문 www.arambi.kr | 아람비스토어 | 주문전화 080-301-8800

‘BCG 폭리’ 한국백신 대표 보석

피내용 결핵 백신 공급 줄여 30배 비싼 경피용 판매... 거주지 제한 ‘임의적 보석’

영유아에게 접종하는 주사형 결핵 예방 백신의 공급을 막고 고가의 도장형 백신을 팔아 30배의 폭리를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백신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최덕호 한국백신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석방을 허가하면서 여러 조건을 달았다.

최 대표는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서울의 주거지역에만 거주해야 한다.

더불어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에 해당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임의적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적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허가할 수 있다.

검찰은 재판부의 보석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보통 항고’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에 따라 최 대표가 보증금 납입 등 재판부가 내건 조건을 이행하면 석방된다.

최 대표는 2017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을 많이 팔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한국백신은 2016년 주력 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매량이 떨어지자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없이 수입 물량을 축소했다. 경피용 백신은 피내용보다 30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2013~2019년 한국백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입찰과 도매상 선정 및 단가 책정 총괄 책임자로서 3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총 21억6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장보러 왔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1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사내매점 물품교환권도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 지급 퇴직금 재산정해야”

산정하면서 CCTV수당이 제외된 일당액을 기초로 삼았다.

회사에서 발행한 물품구입(교환)권이 정기·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현직 운전기사인 A 씨 등은 CCTV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 27명이 B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에서는 현금이 아닌 CCTV 교체 후 지급한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 사 소속 노동조합은 1998년 운행 버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운전직 근로자에게 담배, 장갑, 음료수 등 명목으로 일비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낡은 CCTV를 교체하면서 교체 기간에는 5000원을 지급하고, 교체 후에는 실비변상 조로 일비 1만 원에 해당하는 회사 발행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1심은 “CCTV수당은 실제 근무성과 상관없이 근무 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B 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반면 2심은 CCTV수당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물품구입권에 대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됐고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됐다고 하더라도 CCTV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또 다른 클럽에서 동선 겹치지 않는 추가 확진자 나와

“이태원 확진자, 다른 연결고리 감염 가능성”

박원순 시장 “출입 명단 확보” 익명 검사 후 검사자 8배 늘어



“메이트 등 이태원 클럽 추가 확진자는 전혀 다른 연결고리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재개지는 경기도 용인 확진자(66번)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1만905명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1210명이 외국인”이라며 “서울시는 즉시 영문으로 된 안내 문자를 발송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것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13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수는 총 119명”이라며 “이 중 서울의 관련 확진자수는 69명,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접촉자 중 현재까지 1만4121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클럽 메이트의 경우 하루 평균 약 15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형 클럽”이라며 “클럽 메이트에서 작성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해 연락을 취하고 있고 기지국 접속자 정보 또한 요청해둔 상태이다. 오늘 중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시장은 ‘익명 검사’를 실시한 이후 검사자가 기존보다 8배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태원 클럽 메이트, 핑크 엘리펀트, 피스틸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아직 역학조사 중이나 현

서울시는 현재 최초 확진자가 머물렀던 이태원 키클럽 등 인근 기지국 접속자 명단과 카드사 이용 명단을 통해 1만905명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휴대폰 문자로 권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동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이태원로 224-19)에 설치된 용산구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서울시는 자원봉사자와 서울시사회 인력풀 114명을 확보했고, 선별진료소에는 36명을 투입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까다로운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 개인 위생 매뉴얼 준수
- 위생 전문가의 관리
- 철저한 소독·살균



텅 빈 강의실... 교수도 학생도 수업 집중 못 해

초등학생 '가정학습' 34일까지 출석 인정

대면 수업 대학 가보니

4년제 대학 11.9% 대면 강의 이태원 집단감염 후 대부분 결석 한국외대, 온라인 수강 출석 인정 고려대, 교내 발열 검사소 설치도

"강의실이 3분의 1도 차지 않는다. 자연스레 거리두기가 되지만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일부 대학이 대면 강의를 시작했지만,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자 캠퍼스엔 긴장감이 감돈다.

13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만난 이정혁(23·가명) 씨는 "대다수 학생이 출석하지 않고 강의실에 드문드문 앉아 있다 보니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집중도가 떨어진다"면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강의실에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자 등교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르면 11일 기준 4년제 대학 193곳의 11.9%인 23곳이 대면 강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외대는 서울과 글로벌캠퍼스 전체 4000여 개 강의의 가운데 학생들의 요청으로 254개(6%) 강의를 대면 수업으로 하고 있다.

한국외대는 수강생이 30명 이하의 강의일 경우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상태. 수강 인원이 30명을 넘더라도 △학생 간 거리 확보가 가능하고 △수강생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더 많은 강의는 대면 수업을 허

용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강의실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도 출석 인정된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강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다"며 "온라인으로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의실에 가지 않아도 출석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외대는 모든 건물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하나로 통제하는 등 방역에도 신경을 썼다.

한국외대와 마찬가지로 선별적 대면 강의를 진행 중인 고려대학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고려대는 교내에 발열검사소 5곳을 설치하고 증상을 체크한 뒤 이상이 없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출입증을 대체하는 스티커를 나눠줬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외부인을 비롯해 20여 명의 사람들이 편의시설 등이 있는 고려대 하나스퀘어 안으로 몰려들었다. 카페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고려대 대학원은 일부 강의의 대면 수업 계획을 철회했다.

최근 고려대 공학대학원은 '대면 강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없어 온라인 강의를 지속할 것'이라는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재현(30·가명) 씨는 "언제까지 실습을 못하고 원격으로 이론 수업만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서강대학교 등 각 대학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외출과 등교 자제를 권고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서울시교육청 올해 한시적 허용

서울 지역 초등학생은 올해 한시적으로 최장 34일간 '가정 학습'을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2020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전체 수업 일수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늘리는 지침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연속 10일 이내'이어야 한다는 '연속일' 제한도 없었다.

개학 연기에 따른 감축분이 반영된 올해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3학년 이하 저학년은 171일이고, 고학년은 173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서울 초등학생은 이번 학년도 34일간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보름가량 길어졌다.

앞서 교육부는 7일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이 등교 수업 시작 이후에도 자녀 등교 여부를 선택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체험학습 중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바뀌어도 이를 중단하고 등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고등학생은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교외체험학습 기간 제한이 없다. 다만 각 학교가 학칙으로 규제하고 있고, 통상 연간 20일가량 허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교의 경우 학교장이 교외체험학습 기간과 사유를 보고 학칙에 따라 재량껏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만큼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중·고교에 '2020년도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내려 보내 중2부터 고2까지 수행평가 비중을 절반 줄이도록 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등교 연기 불안해 말고, 정시냐 수시냐 빨리 결정해야"

입시특특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고3 등교 개학이 종전 13일에서 20일로 한 차례 더 미뤄지자 수험생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등교 전 정시, 수시 등 대입전략을 신속히 결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11일 등교 일정을 일주일 미룬 뒤 각 학교는

대입 전형 선택과 집중 필요 자기주도학습, 지금이 기회

중간고사 연기 등 학사일정 조정에 들어갔다. 대다수의 학교가 6월 초·중순에 계획했던 기존의 중간고사 일정을 일주일가량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3 수험생은 등교 수업과 동시에 닥쳐올 여러 시험 때문에 일정이 부담스럽다. 5월 21일 경기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이어 6월 초에는 중간고사가, 6월 18일에는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가 기다린

다. 이어 7월 22일에는 인천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7월 말과 8월 초에는 기말고사가 예정돼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5월 학평에 대비해 자신의 취약 단원이나 과목을 진단해 앞으로 학습 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며 "4월에 진행한 3월 모의고사가 자율적으로 시행돼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이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현재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상위권과 중하위권, 공부를 하는 학생

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격차는 지금 상황에서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등교 연기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우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원격 수업에 집중하면서 차분하게 입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사실상 6월 한 달이 입시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며 "등교에 앞서 비교과 영역을 결정해 두고 내신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능 집중 여부를 조기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수롭지 않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수롭지 않고 실리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K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수롭지 않다. 후속한 성장형기업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항가에는 도움이나 정보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지식을 얻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멍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될 뿐,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호 지음 / 232쪽 / 488원 / 215.000원

착한 선결제 이어 재난지원금 기부+회사 매칭기부 '코로나19' 극복 힘 보태는 금융권

신한·우리, 본부장급 이상 임원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기로
부서장급 이하는 자발적으로
회사서 매칭 기부 취약층 지원도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그룹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에 동참한다고 13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차별화된 기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그룹의 본부장급 이상 임원 약 250여 명이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다. 그룹 부서장급 이하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기부 참여 문화를 조성한다.

또 그룹사별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소비운동' 동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신한금융의 그룹사가 본점과 전국 영업점 인근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 그룹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기부 금액에 매칭해, 신한금융그룹이 일정 금액을 추가 기



신한은행 직원들이 영업점 인근 식당에서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예컨대 기부금액이 1억 원일 경우, '매칭 기부율' 50%를 적용해 산출되는 5000만 원을 신한에서 추가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조성된 금액은 그룹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입해 신한희망재단 등을 통해 취약·소외계층에 전달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민 생활 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리금융도 이날 본부장급 이상 그룹사 임원 약 200명이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기부는 그룹 임원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 동의를 통해 결정됐다. 임원진은 긴급재난지원금 미산청을 통한 자동 기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가상계좌에 본인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입금하는 형태로 자발적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부서장급 이하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 문화도 조성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해 동참하게 됐다"며 "이번 자발적 기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상생의 분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nova@

크루그먼 "유동성 함정, 신흥시장에도 번진다"

터키·아르헨티나 예로 들며 위기에 예외 없다 강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사진)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주로 선진국에서만 나타났던 '유동성 함정'이 신흥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터키나 아르헨티나를 보면, 자본 유입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유형의 신흥시장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국가들은 채무국으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유동성의 함정이 일어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유동성의 함정이란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투자, 소비 등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이 유동성의 함정이 이제 일부 신흥시장에까지 번졌다고 크루그먼 교수는 지적했다.

로서의 역사가 길고, 경기 부양책을 위한 자본 차입 여지가 큰 반면 신흥시장의 경우에는 재정 부양책을 투입할 능력이 더 제한적이라고 크루그먼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내가 만약 신흥시장의 재무장관이였다면 어느 정도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규모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마음을 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소로스의 中 때리기 "미, 중과 공조하면 안돼"

'개방사회 보호' 강조...트럼프 향해선 "美, 헌법 있는 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제사회의 중국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사진)가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중국과 공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소로스는 이날 독일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둘러싼 미·중 갈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공세가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를 어렵게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공조할 필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중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나는 반대"라면서 "우리의 민주적 개방 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및 신종 바이러스 확산과 싸울 방법

소로스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배력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교육 수준이 높은 많은 중국인들이 바이러스를 오랫동안 은폐한 중국 당국에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면서 "중신 집권의 길을 타놓은 시 주석이 어떤 면에서 매우 강력한 입지를 확보했지만 동시에 극도로 취약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소로스는 트럼프 대통령도 겨냥했다. 그는 "트럼프가 독재자가 되고 싶겠지만 미국은 헌법이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그의 일탈을 막고 있지만 트럼프가 정치적 생존에 목숨을 걸고 있어 끝없이 시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이경은·이석모 청년연구소 대표 '5월 농촌융복합산업인'

청송사과 건강음료 개발...2년 만에 매출 3400만원→23억

청송 사과를 활용해 주스와 건강음료를 개발한 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의 이경은·이석모(사진 왼쪽부터)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4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선정됐다.

대학에서 농업생명과학을 전공했던 두 대표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농촌에 도움을 주고 홍보·마케팅에 강점을 가진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청년연구소 설립했다. 청년연구소는 청송군 40개 생산 농가와 연구회를 결성하고, 사과연구·계약재배를 진행했다. 가공제품(사과즙·탄산사과주스) 개발

에 이어 체험농장 운영을 통해 농촌융복합 산업화에 성공한 사례로 손꼽힌다.

대규모 계약재배를 통해 매년 약 613톤의 사과를 매입 중이며 특히 생산량, 출하 방식, 홍보방안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 협의로 결정하는 운영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음료 생산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과일의 색깔을 탐스럽게 보이거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농약사용을 하지 않고, 주변 잡풀을 제초하지 않는 등 자연 친화적 농법도 활용한다.

제품개발·판매단계에서도 캔 형태의 탄산 작즙 주스를 생산하고, 파손방지를 위



한 배송용 에어백 포장도 도입했다. 아울러 풍기름을 활용한 홍보물 인쇄, 비닐 대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방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식품안전관리(HACCP), 저탄소 인증 획득 등을 획득했고, 2017년 3400만 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23억 원으로 증가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에쓰오일 '주유소 나눔 N 캠페인' 2억8000만원 기부

에쓰오일(S-OIL·대표 후세인 알 카타니·사진 오른쪽)은 주유소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주유소 나눔 N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에쓰오일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복·왼쪽)에 기부금 2억8000만 원을 전달했다.

'주유소 나눔 N 캠페인'은 지역 사정에 밝은 당사 주유소를 활용해 주유소 인근 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50개의 에쓰오일 주유소와 영업부문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아동센터, 장애인·노인시설 등 지역복지시설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정기적으로 시설정소, 배식, 문화체험 동행 같은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에쓰오일은 전국 소재 영업 지사별로 '주유소 사회봉사단' 출범식을 열었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CEO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함께 헤쳐 나간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며 "이런 때일



수록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고 에쓰오일의 핵심 가치인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인사

-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노재욱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정규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김용태
- ◆KBS △경영본부 경영관리국 후생부

장유창호

◆KBS미디어 △감사 오성일

부음

▲이도운 씨 별세, 권혁부(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핵지(삼성SDS 부장)·은

주(안양시청 팀장)·은영(리우터와이즈 대표이사) 씨 모친상, 윤형원(중앙대학교 부처장) 씨 장모상, 김명숙(부광중학교 행정실장) 씨 시모상 = 1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장례식장 특1호.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경기 광주시 광주공원묘원, 02-3010-2262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벼 직파재배 파종' 시연



이성희(왼쪽) 농협중앙회장이 13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서 '벼 직파재배 파종' 시연을 하고 있다. 이날 시연회에는 송옥주 국회의원,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직파재배 참여 농협 조합장 및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성희 회장은 "직파재배는 벼농사에서 생산비용을 10% 이상 줄일 수 있고, 직파 후에는 논에 동계작물을 재배해 소득을 늘릴 수 있다"며 "농협은 직파재배 확대를 위해 농기계은행사업 무이자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농협중앙회

가구협회장에 이영식 한샘 부회장

이영식 한샘 부회장이 한국가구산업협회장에 취임했다. 한국가구산업협회는 12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영식 부회장을 6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선임 회장은 "가구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가구산업 종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가구산업협회는 가구산업의 발전과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가구·인테리어 관련 제조, 유통사 등 전국에 100여 개의 회원을 두고 있다.



최영희 기자 che@

백세현 대한성형안과학회 회장 취임

고려대 구로병원은 백세현 안과 교수가 대한성형안과학회장에 취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2020년 5월부터 1년간이다.

백세현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한성형안과학회 기획이사 총무이사, 대한안과학회 정보통신이사, 고시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식약처 의료기기 전문위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대한안과학회지 및 20여 편의 영문학회지 논문심사위원을 담당하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자본시장 속으로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인류는 큰 교훈을 얻었다. 자급자족의 고립주의는 모두에게 해가 되고, 시장을 강탈하기 위한 패권주의는 자해 행위임을 알게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갈등도 있었지만, 경제 전체가 파국으로 치닫기보다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뒤따른 배경이다.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의 암살 사건으로 촉발된 1차 세계대전은 1918년 끝날 때까지 20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서부전선은 1914년 말부터 교착 상태에 빠진 후 1918년까지 참호 전쟁으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기관총, 가스, 탱크 등 온갖 신무기가 활용됐다. 하지만 무력이 아닌 내부의 혁명으로 전쟁은 끝이 난다. 1차 세계대전의 진정한 종전은 2차 세계대전 나치의 항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에 승리했지만 피해는 피차 마찬가지로. 전쟁비용으로 소진된 금은 미국으로 넘어갔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과도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다.

금을 보충하기 위한 경제 블록화는 결국 대공황으로 치닫게 되는 원인 중 하나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19년 영국 대표 단으로 파리평화회의의 현장에 있었고, 1919년 11월 '평화의 경제적 결과'를 출간한다. 케인스는 패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은 베르사유조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조약에 이르게 된 이유가 정치에 있음을 지적했다.

영국의 로이드 조지와 프랑스의 조지 클레망소는 전후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그저 국민의 분노를 달래주기에 급급했다. 독일을 징벌하는 데 몰두했고, 결국 이는 독일 국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 히틀러가 집권하는 데 일조한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진통을 겪고 나서야 케인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마셜 플랜은 징벌이 아닌 관용으로 패전국을 대했고, 그 결과 세계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에서 1970년까지 꾸준히 성장했다.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1차 세계대전 이후와 현시기를 떠올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대공황으로 치닫기에는 연준의 행보가 밎 빠르다. 프리드먼과 슈워츠는 '미국화폐사'에서 대공황으로 치달은 이유가 연준의 화폐공급 축소에 있음을 지적했다. 다행스럽게도 버냉키의 전공은 대공황이었고, 돈의 힘으로 금융위기에서도 벗어났다. 버냉키 이후의 연준은 이런 견해를 따라왔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 역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안정되자, 비판론자의 화살이 다음으로 향한 곳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제기했고, 이후 1월 15일의 미국과 중국

간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구심이 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각자도생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두 차례 세계 대전에서 인류는 큰 교훈을 얻었다. 자급자족의 고립주의는 모두에게 해가 되고, 시장을 강탈하기 위한 패권주의는 자해 행위임을 알게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갈등도 있었지만, 경제 전체가 파국으로 치닫기보다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뒤따른 배경이다.

오히려 코로나 이후 중국의 역할론은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의 경기는 1분기에 저점을 다지지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 2000년대의 중국은 생산기지였지만, 2020년대의 중국은 글로벌 소비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 중국 역시 이미 루이스 전환점을 지났고, 이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과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급격히 하락했고, 2012년을 기점으로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추월한다. 그래도 GDP 대비 비중은 38.7%에 불과하다.

역설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이러한 중

국의 구조개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미국은 달러를 과잉 공급했고, 이를 외부로 유출해야만 한다. 중국도 저축보다 소비로 나아가야 한다. 기업에 내부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선 40%가 넘는 저축률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고용 창출을 위해선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약진이 더 요긴하다. 자금 마련도 내부보다 외부에서 끌어오면 된다. 미국은 잉여생산물 팔 시장이 필요하며 투자를 통해 달러를 조절해야 한다. 2000년대 글로벌 불균형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편, 6월 6일부터 중국은 주식 및 채권 투자 한도를 폐지한다. 이미 중국은 미국에 손을 내밀었고, 미국은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5월 21일 개최되는 양회에서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를 시사하는 논의가 진전된다면, 중국의 소비역할론은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위안화 강세를 기다리고 있다. 빠르게 회복되는 중국 경제를 고려하면, 달러와 유로화 대비 강세는 당연하다. 위안화와 연동되는 원화의 제자리 복귀를 기대한다. 원화의 상대적 강세는 외국인의 귀환을 의미하며 동시에 코스피의 상단을 여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도시와공간 대표

오는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미 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분양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되팔 수 있던 비규제지역에서 늘어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분양권 전매 금지는 청약시장 과열이 투기 수요 때문이라 보고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금지가 투자자의 청약을 다소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분양 물량 감소를 초래해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분양권 전매 금지와 시장의 역습

이번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모든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8월 이후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받는 물량부터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 분양받은 물량은 횡수와 상관없이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기존 분양권은 이른바 '한정판'이라는 희소성을 띠게 되어 오히려 분양권 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2016년 12월부터 강남4구의 분양권이 전매 금지되었고 2017년 6월에는 서울 전역으로 전매 금지가 확대됐다. 그러나 서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이후 오히려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가격이 더욱 급등했고, 최근에는 10억 원에 가까운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곳도 등장했다.

최근 분양권이 각광받는 이유는 공급 부족에 따른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양도세 증가에 따른 세금 폭탄 때문에 거래 가능한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매를 금지하면 분양권 매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새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새 아파트 희소성이 부각되면 이미 입주한 새 아파트뿐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자연보전권역이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성장관리권역이면서 비교적 교통이 불편한 곳은 앞으로 분양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지난 11일 잔여물량을 분양한 인천 송도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금지 소식이 들리자 수많은 '줍줍' 청약자가 몰려들면서 무려 2만8000대 1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의 분양가가 7억 원대로 싸지 않은 가격인데도 엄청난 수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지난 2006년 아파트값 급등에 나온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대체하

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아파트를 대체하면서도 전매 제한에 걸리지 않는 아파텔(주거형 오피스텔)의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8월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분양권 6개월 전매의 막치를 타려는 수요가 늘어나 오히려 비규제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년여간의 전세시장 안정기를 지나 입주 물량 부족으로 올해부터 전세난까지 겹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코로나발(發) 시중 유동성 공급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하반기 집값 안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얼마 전 공공이 주도하는 서울의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나왔지만 향후 얼마나 민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진 미지수이다.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당분간 민간시장의 공급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나마 실수요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3기 신도시가 하루 빨리 공급되길 기다려본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라일리 B. 킹 명언 "배움의 아름다움은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음을 있다."

특유의 비브라토(vibrato) 기타 스타일로 1960년대 블루스 리바이벌에 영향을 끼친 미국의 블루스 가수. 'Blues Boy'라는 뜻의 'BB'는 그의 별명. 'Live At The Regal' 'Riding With The King' 등이 대표앨범으로 꼽힌다. 그는 오늘 숨졌다. 1925-2015.

☆ 고사성어 / 영과후진(盈科後進) '구멍을 가득 채운 뒤에 나간다'는 뜻. 물은 오목한 곳이 있으면 우선 그곳을 가득 채우고 나서 흘러간다는 말.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는다[流水之爲物也不盈科不行]." 맹자(孟子) 진심(盡心)편이 원전. 맹자는 학문도 물처럼 비약이란 있을 수 없고 단계적 성취를 거쳐 궁극의 경지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했다.

☆ 시사상식 / 스몸비(smombie)족 스마트폰에 열중하며 걷는 사람들을 좀비에 빗댄 말.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못해 걸음이 느리고 주위를 살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앞이나 옆에서 오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보지 못해 일반 보행자보다 사고를 당할 확률이 70% 이상 높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초승달 '날 생(生)'은 '승'으로 소리 나는 경우(예: 이승←이생, 저승←저生)도 있다. '초승달'도 '초생(初生)+달'에서 '생(生)'의 음이 '승'으로 변해 굳어졌다.

☆ 유머 / 양치기 소년의 최후 늑대가 나타났다고 했던 양치기 소년이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마을 사람들의 용서를 받았다. 어느 날 소년의 머리 위로 비행기 4대가 지나가자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소리 높여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 후로 소년은 마을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소년의 감탄사. "야! 너 대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올해 스무 살이 됐는데 클럽에 가려고요. 흥대에서 클럽 데이 하는 곳은 어디가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흥대 앞은 불타는 청춘들로 가득 찬다. 일명 클럽 데이가 열리는 날. 한 장의 티켓을 사면 흥대 앞 클럽들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클럽과 주점에서는 잊힌 존재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도 젊은이들의 거리는 무척이나 가까웠다. 결국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시작됐다.

하루 5명 안팎으로 줄었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2차

기저수첩

3차 감염자를 만들어내며 20명, 30명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아버지와 조카를 코로나19에 감염시켰고 군대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접촉자를 만들었다. 방역당국이 찾아낸 클럽 관련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고, 방문자만 해도 1만 명에 육박한다. 확진자 동선이 많아질



이해곤 정치경제부/pinvol1973@

청춘아, 좀 참아달라

수족 진단검사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미 클럽에 이어 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전날인 12일 하루에만 흑시 하는 마음에 1만5000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클럽은 공공의 적이 됐다. 가장 먼저 이슈가 됐던 성 소수자

에 대한 비난도 날카롭다. '이 시국에', '그렇게 놓고 싶었나' 등 비난의 화살들이 거침없이 쏟아진다.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난의 칼을 잠시 내려두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방문자들을 검사하 아닌 도피로 이끌 뿐이다. 이들이 숨을수록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는 확산한다. 정부가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통신사 기지국을 이잡듯이 뒤지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가 나서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태원발 코로나19의 확산 고비는 이번 주다.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은 방역 모범국으로 남을지는 뜨거운 청춘들의 결자해지(結者解之) 모습에 달려 있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영릉 세종 리턴즈 (그입 다물라)

하도 헬조선 소리를 듣다 보니 정말 왕조가 열린 줄 착각을 하나 보다.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이 태종이라더니 다른 이의 입에선 세종대왕까지 나왔다. 문 대통령이 왕이면 성은을 입은 어공들이야 절로 만조백관 반열에 드니 용비어천가 드높일 만도 하다. 하나 회사 다니는 우리는 직장간에 노비 신세로 떨어지는 소리니 방정맞은 그입 서둘러 다물라.

다구나 공화국의 공직에 있는 자가 군주를 입에 올렸으니 나라의 주인을 함부로 바꾸는 모반에 다름 아니다. 마땅히 대역죄로 다스려 주리를 들고 삼죽을 멸해야 하나, 차마 속뜻은 그러하지 않을 테니 주인이 너그러움을 베풀기로 한다.

우리가 성공한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됐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퇴임 후 법정이나 강연장 같은 곳에 선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멋들어진다. 다만, 세종인지 연산군인지는 문 대통령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평가할 일이 아니다. 평가가 아니라 바람을 말했을 뿐이라 해도 번지수가 잘못됐다. 문 대통령이 세종처럼 되길 바란다면 참모들은 스스로 황희가 되고 정갑손이 될 생각부터 해야 맞지 않을까.

황희와 견줄 인물이라 자신하는가. 도승지와 육조판서를 모조리 거치고 우의정과 영의정까지 섭렵한 그는 무려 73년간 왕을 보필하다 현직 영의정부사로 순직했다. 69세이던 세종 13년 처음 사직을 청했던 그는 20년 동안 9차례나 물러나게 해달라 애원했으나 세상과 작별하고서야 세종을 떠날 수 있었다. 청와대 찍고 자기 정치하겠다고 우르르 떠났던 철새들이 세종을 입에 올리면 '세종 1호 노예' 황희가

데스크칼럼

정 일 환

정치경제부 정치팀장



떠오르는 이이다.

정갑손은 대중적 인지도나 벼슬의 높고 낮음에서는 황희에게 밀릴지 몰라도 '살아서는 염근리, 죽어서는 청백리'의 표본으로 꼽히는 세종의 측근이다. 정무수석이나 검찰총장쯤 되는 대사헌을 지낸 그는 정승·판서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서슴없이 '국문하소서'를 외쳐 세종 등에 땀까나 흐르게 했던 인물이다. 세종조차 까칠한 그가 부담스러웠던지 함길도 관찰사로 내친 적이 있다. 어느 날 정갑손은 세종의 부름을 받고 한양에 갔다 돌아오던 길에 함길도 향시 급제자 명단에 아들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됐다. 향시는 지방에서 치르던 과거시험으로,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한양의 복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정갑손은 기뻐했을까. 그는 "아들의 학문이 부족함을 내 이미 알거늘 어찌 요행으로 임금의 숙인단 말이나"며 크게 화를 낸 뒤 손수 급제자 명단에서 자식 이름을 지워버렸다. 그럼 정갑손의 아들 정오는 정말로 감이 안 되는 인물이었을까. 정오는 군말 없이 경상으로 내려가 다시 향시에 응했고 장원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듬해 대과에 급제해 당당히 금의환향했다. 역시 범의 새끼가 고양이일 리는 없는 모양인데, 부모의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해 자식을 범으로 만들어보려다 탈이 난 청와대 고양이가

생각나는 건 분명 기분 탓일 게다.

'중국 속국' 논란이 일 때 누가 좀 보고 배웠으면 하는 신하도 세종에게는 있었다.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하면서 "나의 주춧돌 같은 사람"이라 특별히 천거했던 문경공 허조는 세종에게 "아니 되옵니다"를 가장 많이 외쳤던 예조판서다. 고려 우왕부터 조선의 세종까지 두 왕조에 걸쳐 6대의 임금을 섬긴 인물이다.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고,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도 사실은 세종이 아니라 허조의 인사 원칙이다.

사극이나 영화에서와 달리 아쉽게도 현실의 세종은 '신하의 나라'를 자칭하며 중국을 받드는 사대가 지나쳐 되레 신료들과 마찰이 잦았다. 허조는 그런 세종에게 수시로 태를 걸었다. 어느 날, 군마 1만 필을 보내라는 명나라 영락제의 요구를 세종이 들어주려 하자 그는 "백성의 피고름이 터지고 조선의 안위가 흔들리는 일"이라며 목을 내놓고 반대했다. 영락제가 죽은 뒤 조선 출신 후궁 한 씨를 순장하자 "허수아비도 순장하면 대가 끊긴다는 것을 아는데 대국의 이런 것은 배울 바가 못 된다"며 팽폭을 날려 미움을 사기도 했다.

'중국 마스크 셔틀'과 '300만 달러 조공' 논란이 한창일 때 아니 되옵니다를 외친 문 대통령 측근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다. 문 대통령이 세종 위를 걸길 바라는 각료와 참모들이 기억해 줘야 하는 것은 세종은 간신에게 곁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느 시대, 어느 왕에게나 있던 요망한 세 치 혀가 유독 세종대의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 성군과 태평성대를 원한다면, 그 방정맞은 입부터 서둘러 다물라. whan@

시설

최악의 고용 쇼크, 노사정 대타협 빨리 나서야

코로나19 사태의 고용시장에 대한 파장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일자리가 가장 큰 폭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7만6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컸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 2개월 만에 최대의 마이너스다.

모든 지표가 최악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P) 내린 59.4%로 2010년 4월(59.2%) 이후 가장 낮았다. 실업률은 0.2%P 내린 4.2%였지만,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9%로 1년 만에 2.5%P 올랐다. 15~29세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1.4%P 상승한 26.6%다.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연령대별 취업자는 60세 이상에서 만 27만4000명 증가했을 뿐, 40대(-19만 명), 30대(-17만2000명), 20대(-15만9000명), 50대(-14만3000명) 등 전 연령층에서 뒷걸음질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40대는 2015년 11월 이후 54개월째 하락세다.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비스업(-44만4000명), 숙박·음식업(-21만2000명), 도소매(-12만3000명), 교육서비스업(-13만 명) 등에서 대폭 줄었다. 주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았다.

고용대란은 앞으로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경제활동인구가 55만 명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83만1000명 증가했다. 두 지표 모두 200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나쁘다. 취업도 실업상태도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급증은 채용시장이 얼어붙어 구직을 단념한 인구가 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들은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특히 일시휴직자가 1년 전의 3배인 113만 명 폭증했다. 일시휴직자는 직장의 휴업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일을 쉬는 근로자다. 통계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이 6개월 이내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하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다. 고용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한폭탄'이다.

고용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빠질지 짐작조차 어렵다. 정부도 다급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5만 개+α 직접 일자리 신속공급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정을 쏟아붓는 일자리 대책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기업들이 우선 살아남아야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지금의 비상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난국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을 살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기업은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노동계의 고용분담이 관건이다. 지금처럼 노동계가 기득권만 고집해서는 고용대란을 극복할 수 없다. 노사정의 새로운 대타협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

배준호의 세계는 왜?



국제경제부 차장

中, 코로나19 책임론 잠재우려면

박차고 나간 돌발 행동에 주목하면서 트럼프가 '추잡한 반응'을 보였으며 꼬집기까지 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발끈하게 된 계기를 중국이 제공한 것에 대해 아무런 비판이 나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1단계 무역협정 재협상이 불거져 나온 것은 트럼프 기자회견과 같은 날 나온 중국 환구시보의 보도 때문이다. 환구시보는 중국 우한 연구소가 코로나19의 기원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무역협상 담당자들이 '분노의 쓰나미'에 휩싸였으며 일부 중국 정부 고문은 경기침체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 미국이 무역전쟁을 재개할 여유가 없다며 1단계 협의를 뒤집어 버리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우한 실험실에서 비롯됐다는 설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더라도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도 중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해 오늘날과 같은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주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게 코로나 팬데믹 선언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코로나와 싸울 수 있는 시간을 4~6주 낭비했다고 폭로했다. 이 보도의 소스는 바로 독일 연방정보부다. 사실상 독일 정부가 슈피겔 뒤에서 중국을 추궁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책임론에 콧방귀를 뿜 위치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탓에 역설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가장 먼저 경제 정상화에 착수했다. 또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등 코로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세계 각국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로 중국밖에 없다. 이러한 무역협정을 무효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위협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중국은 더욱 겸허하게 행동해 세계인들의 분노를 잠재워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기침체로 전 세계인들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가운데 미·중의 영양가 없는 대립은 사람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할 뿐이다. 설령 트럼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하더라도 중국이 무역전쟁 뇌관을 앞장서 제거하는 등 리더십을 보여주면 '중국책임론'도 잠재해질 것이다. baehj94@

한 킷



아이들의 미소가 보고 싶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뒤 모처럼 공원(서울 하늘공원)으로 나와 노는 어린이들의 표정이 밝다.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에서 친구를 만날 수 없으니 답답함이 오죽했을까.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발현과 방역지침 준수로 속히 일상을 되찾아 학교와 거리에서 아이들의 미소를 볼 수 있길 바란다. 신태현 기자 holijj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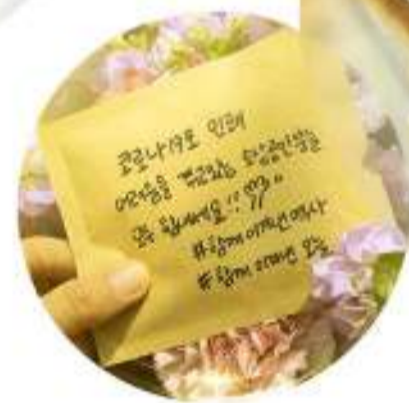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세상을 바꾸는 금융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뒤편 국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뤘내고 20개국 정상들이 앞다투어 노하우를 배우려 하는 나라 모든 하늘길이 막혔어도, 예외적으로 입국허가를 받는 나라 그 뒤편, 국민이 있습니다

더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양보하고 따뜻한 기부와 자원봉사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국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헤쳐나가는 국민의 모습이 70억 세계인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자랑스러운 국민 곁에 KB금융그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